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7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정신으로 기적을 창조하라

제이 시대  
채식주의자가 된 소방관들

지구의 균형적인 발전  
전세계 주요 변화

행복한 동물 낙원  
해피 도기-애완견 천의 및 방식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TV-1 (영어+23개 국어 자막)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살아 있는 성인의 길을 걷자

### 주요 내용:

칭하이 무상사가 보여 주신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본보기에 감화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수년 동안 다양한 자선 활동에 동참하여 수행을 통해 키운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 대중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DVD의 앞부분에는 포모사 국제협회 회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펼친 환경 보호 활동과 921 지진 및 태풍 나리 재난 구호 활동이 담겨 있으며, 뒷부분에는 칭하이 무상사의 아프리카 방문이 소개되어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1999년 세계 종교회의에서 초청 연설을 하신 후 아프리카 순회 강연과 세계 평화 기원을 위한 국제 선 행사를 개최하셨다. 이 DVD를 통해 남아프리카의 최대 방송국인 SABC와 가진 스승님의 탁월한 인터뷰와 남아프리카 줄루족 어린이들의 멋진 무용 공연도 볼 수 있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CG08 (중국어)

물질적 삶과 수행의 관계

1988. 11. 20. 포모사 시후 단계명상

### 주요 내용:

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하는가? 각 개인은 어떻게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면의 전능한 힘을 펼쳐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가? 수행 중 장애에 부딪히거나 내면의 체험이 줄어들어서 수행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승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 “화신 스승은 우리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초조해합니다.

자녀들이 그 단계, 그 경계를 뚫고 나가길 줄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뚫고 나가야만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기가 쉬워지니까요. 따라서 내면의 스승을 봤다면 이미 절반 정도는 온 것입니다. 이전보다 약간 홀가분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CONTENTS

## 차례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7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6년) 8월 18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아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 4 다채로운 이벤트

피지/ 뉴질랜드/ 미국/ 대한민국/ 몽골

#### 9 시

우리는 성전입니다

#### 10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중동/ 스페인/ 서아프리카/ 미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홍콩/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30 스승님이 동수들에게 보내신 편지

#### 31 수행 일화

스승님의 강연에서 얻는 뜻밖의 이로움

#### 31 관음 웹사이트

#### 3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정신으로 기적을 창조하라

#### 36 스승님이 해주는 이야기

실제 경험이 빈 이론보다 낫다

#### 37 스승님의 농담

의견일치/ 제 잘못이 아니에요!/ 가장 인쇄심이 많은 청중

#### 36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조건 없이 주고 나머지는 신이 돌보게 하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동정심을 배워라/ 가장 높은 세계는 사랑과 은총으로 다스려진다

#### 40 지혜어록

우유를 마셔도 되는가/ 우리의 둘째 어머니, 젖소

#### 41 수행 수상록

스승님에게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 42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노르웨이/ 전세계적 대체 에너지 시대를 주도하는 유럽연합

#### 44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중국/ 북아일랜드/ 스페인/ 스리랑카

#### 47 사제시간의 편지

완전 입문을 깊이 열망하며

#### 48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유지하는 발전적인 주택 단지/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과 비전의 결합

#### 53 매체 보도

『Ojo-Mirada a la Actualidad』

#### 54 스승님 말씀

텔레파시의 힘

#### 55 유용한 정보

모든 중생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독제

#### 56 동물의 유정 세계

사랑은 가장 좋은 대화법

#### 57 수행의 길목에서

관음 가족은 날마다 행복해

#### 58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이 인디펜던트 TV를 통해 매일 전국적으로 방영되다

#### 61 채식 시대

실상을 폭로하는 영화: 미트릭스/ 채식주의자가 된 소방관들/ 에너지 위기의 해결법: 대체 연료와 채식/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 67 사랑의 실천

이란/ 이란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 72 전세계 연락처

#### 뒤표지 행복한 동물 낙원

해피 도기-애완견 천의 및 방식



피지 소식

## 신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

N.L./ 뉴질랜드 넬슨 (원문 영어)

[수비] 지난 몇 달 전부터 피지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방법을 의논하던 넬슨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이웃 나라들과 함께 나누라는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시를 받고 바로 피지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이어서 몇 주 동안 이 섬 곳곳에 '대안적인 삶' 전단지 4만 부가 배포되었다.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는 동안, 수행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숙연해지고 때로는 말조차 잊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도 겸허해지곤 했다.

한 남자의 경우, 동수가 무엇을 나눠 주는지도 모르면서 복잡한 거리를 뚫고 곧장 동수에게 다가와서는 잠시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이 바로 자신이 몇 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임을 강하게 느꼈다고 얘기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환한 빛이 앞이 보이지 않는 무성한 밀림에서 자신을 찾아내 빼내는 꿈을 꾸었을 때 직관적으로 스승님이 자신의 영혼을 해탈시키고자 오신 것임을 알아차렸다. 며칠 뒤 방편법을 전수 받았을 때 그는 이 꿈을 떠올렸으며 다른 훌륭한 내면의 체험도 많이 했다. 우리는 그에게 그 체험은 스승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잘 간직하라고 알려 주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통해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사촌간인 피지인 두 사람은 상대가 강연회에 참석하는 줄 모른 채 왔다가 강연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 다 방편법을 배웠으며 다음 강연회에도 참석해 스승님의 지혜를 보다 많이 구했는데, 이들 두 사람의 얼굴은 신과의 접촉을 통해 환하게 빛났다.

그 중 한 명은 방편법을 겨우 이틀 수행했을 뿐인데도 기분이 너무나 흥분해졌다면 무슨 일을 하든 공중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얘기했다. 그녀는

이것이 신과 접촉하는 진정한 법임을 즉시 알게 되었다고 가슴 벅차했다. 나중에 그녀는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수행하면서 가족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성인의 길을 따르도록 격려한 결과 온 가족 열여섯 명이 채식하게 되었다고 알려 왔다!

피지인들 중 상당수가 인도 대륙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영성 경전과 명상에 대해 조예가 깊다. 힌두교 재가 전도사이자 『바가바드 기타』 강사인 한 남자는 호기심에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방편법을 전수받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으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법문에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떠날 때 한 동수가 전단지를 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받아들였다. 나중에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전단지를





받았던 순간이 자기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회상했다. 방편법을 배운 후 그녀는 얼굴이 환해졌으며 살아 계신 큰스승에게 인도해 준 모든 이에게 몇 번이나 고마워했다.

강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과도 같은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를테면, 우리는 피지에 가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TV를 구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안배로 강연회 이틀 전에 두 대의 대형 TV가 나타났다. 강연회 준비를 도와준 그 지역의 동수 부부는 이 축복으로 충만한 일을 겪으면서 몹시 기뻐했으며,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더욱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큰 자극을 주었다. 그들의 16세 된 딸도 이런 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후 강연회에 참석해 방편법을 신청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과 직접 소통하고자 열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피지 여행은 신을 찾는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신의 분별 없는 사랑과 은총만이 가끔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 이런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을 공통된 목적과 보편적인 이해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는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풍부한 직접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일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까운 미래에 피지를 다시 방문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로 다짐했다. ☂

## 뉴질랜드 소식

# 마푸아 부활절 축제에서 큰 힘을 얻다

넬슨 뉴스그룹 (원문 영어)

**[넬슨]** 뉴질랜드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인 마푸아(Mapua)에서 제25회 연례 마푸아 부활절 축제가 개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한 열성적인 동수들은 1만 2천 명에서 1만 6천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이 대규모 축제를 위해 군침 도는 갖가지 채식 요리를 준비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가장 눈에 띄는 부스 전면에 전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축제에서 유일하게 채식 요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와 채식 요리를 처음으로 시식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우리는 많은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채식 요리 비법을 알려 주기도 했다.

한 부인은 어린이 당뇨 때문에 완전 채식을 하는 세 살 된 손자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아주 쉽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얘기했다. 또한 집시와 같은 생활을 하며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있는 한 여성은 채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또한 축제 기간에 고기 요리 대신 채식 요리를 팔기 위해 채식 요리법을 알고 싶어하기도 했다.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여는 요리 강좌에 참석해 보라고 권하자 그녀는 매우 고마워했다.

외국인들도 우리 부스를 방문했다. 그 중 몇몇 미국인은 채식 요리를 사면서 우리에게 이번 축제에 참가해 준 것에 고마워했다. 그들 중에는 오랫동안 채식 하던 동물 권의 보호에 열심인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지과 함께 '당신이 먹는 고기를 보라(Meat Your Meat; <http://www.goveg.com/factoryFarming.asp>)' 라는 컴퓨터 동영상 다운로드 제작한 CD도 무료로 나눠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 갔다. 우리는 이 CD를 통해 동물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실을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 하도록 희망했다.

뉴질랜드는 육류와 유제품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이 건강에 이롭고 맛있는 채식 요리를 즐기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기운이 솟았으며, 우리와 얘기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채식 요리와 정보를 구하는 모습에 더욱더 고무되었다. ☂

## 미국 소식

# 다양한 방법으로 뉴욕 시민들과 스승님의 축복을 나누다

성이 리/ 뉴욕 (원문 영어)

[뉴욕]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뉴욕 동수들은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25만 부 인쇄하여 뉴욕 시 전역과 주변 지역에 배포했다. 전단지 배포 활동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주말 벼룩시장, 공공도서관, 영화관, 쇼핑몰, 건강 및 유기농 식품점 등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집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채식 식당과 건강 식품점 주인들은 전단지를 받으며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지를 많이 챙기기도 했다. 동수들은 전단지를 놓아 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전단지가 다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충해 놓는다. 이 밖에 많은 동수들이 이메일과 인터넷을 이용해 전단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뉴욕의 다문화적 배경에 걸맞게 몇 개 국어로 전단지를 인쇄하고 여러 신문에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전면 컬러 광고로 게시했다. 또한 스승님의 축복으로 1998년부터 지역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채식에 대한 스승님의 여러 강연을 방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동부 6개 주의 시청자들은 주말마다 케이블 TV를 통해 집에서 스승님의 강연을 즐길 수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심신과 영혼 박람회 중 하나인 '2006 새생활 엑스포'가 뉴



욕 호텔(Hotel New Yorker)에서 열렸다. 동수들은 이번 박람회를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과 나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모두 '대안적인 삶'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참가했다. 탁자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하고 TV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DVD를 상영했는데 많은 손님들이 관음법문에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남아서 한 시간이 넘도록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하기도 했다.

4월 2일에는 뉴욕의 힐튼 롱아일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반연례 건강 축제(Semi-Annual Wellness Health Fair)'에 참가했다. 부스에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와 DVD, 뉴스잡지, 기타 출판물을 전시하고 거기에 만세등을 함께 전시하자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동수들이 맨해튼에서 100km 떨어진 롱아일랜드의 행사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 부스는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몇몇 사람들은 케이블 TV를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본 적이 있다면서 반가워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전단지를 꼼꼼하게 읽은 후 채식으로 바꾸면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지 우리와 얘기를 나누었다. 일부 손님들은 다음에 롱아일랜드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열리는지 묻고는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뉴욕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깨달음의 불꽃이 피어올랐으리라 믿는다. 🌸



대한민국 소식

## 초등학교에서 채식주의에 문을 활짝 열다

광주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광주]**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8일, 광주 동수들은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채식 음식을 대접했다. 광주 외곽인 나주에 위치한 이 학교는 올해 신설된 대안학교로 18명의 교사들이 약 9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수들의 자녀 다섯 명이 다니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채식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채식 식단을 별도로 제공하는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동수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채식 파티를 열고 싶다고 하자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받아들여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교사들과 학부모도 함께 초대했다.

행사 당일, 동수들은 식사에 앞서 먼저 채식의 유익함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식사가 준비되자 아이들은 맛있게 차려진 채식 음식을 보고 환성을 지르며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다양한 요리를 맛본 모든 어린이들이 채식 요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보다 훨씬 맛있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채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순 식물성 재료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있는 채식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며 앞으로 채식 요리 강습회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채식 홍보 행사였다. 이 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채식의 이로움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동수들은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시식회를 가질 계획이다. 🌸



## 몽골 소식

# 스승님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가 몽골을 빛내다

몽골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울란바토르] “말이 달리고 가족들은 노래하고 모두에게 풍요로운 하늘과 대초원, 웃음소리와 자연, 환대가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몽골을 특별한 땅으로 만든다.”\* 스승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있음은 아주 명백해 보인다.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은, 센터들이 하나둘씩 생겨나 스승님의 가르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문식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동수들과 ‘고침’ 동수들이 함께 모여 진아와 다시 연결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진정한 지혜를 얻도록 깨우쳐 주시고 고통과 무지에서 해탈시켜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에 열린 입문식 때는, 행사가 끝난 후 노래와 춤, 영성 시 낭송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영혼을 축하해 주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동수들의 도움으로 몽골의 여러 지역에 새로운 센터와 연락소가 생겨났다. 이 밖에 다칸(Darkhan), 쿠틀(Khutul), 준 카라(Zunn Kharaa) 등 외곽 지역에 동수들이 운영하는 채식 카페가 생겼는데,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대중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생기게 된 것에 감사히 생각한다.

몽골의 전통적인 일상 음식에는 많은 유제품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채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열정적



으로 ‘대안적인 삶’의 이  
념을 홍보하는 동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 많은  
유목민들이 채식을 시작하  
게 되었다.

또한 스승님의 축복으  
로 견본책자와 『즉각 깨  
닫는 열쇠』제1권과 제4  
권, 제6권이 몽골어로 번  
역되었고 최근에는 뉴스잡  
지도 번역하고 있다. 동수  
들은 열정적으로 ‘대안적  
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  
고 그 내용을 많은 일간  
지와 영성 간행물에 실어  
관음법문과 채식의 알리고  
있다.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스  
승님 덕분에 많은 센터가  
생겼고 점점 더 많은 몽  
골인들이 깨달음을 위한  
진정한 법문을 알게 되었  
다. 🌸

\*투멘자르갈 샤라브(Tume-  
njargal Sharav)와 L.T. 크로  
프트(L.T. Croft)가 함께 지은  
노래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중에서.



## 우리는 성전입니다

열여섯 살 방편법 수행자 아이빌/ 몽골 울란바토르 (원문 몽골어)

나는 성전(聖殿)입니다.  
당신도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성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신의 깨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텅빈 존재,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우리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때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인(聖人)입니다.

부처는 바깥에 없습니다.  
부처는 절에 있는 불상이 아닙니다.  
부처는 당신의 자애로운 노모의 육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부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겐 그녀가 섬겨야 할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당신의 평범한 육신은 당신만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은거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의 진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신이 거하십니다.  
사랑과 순수,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자비입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 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 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지를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 중동

## 중동에서 신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며

왕웨이잉 사저/ 포모사 지롱 (원문 중국어)

스승님의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세계 곳곳에 전하고자 포모사 동수 열한 명이 한 팀이 되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향해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했다. 우리 팀은 황금 시대 3년(2006년) 3월 30일, 첫 번째 목적지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레바논

### 베이루트

3월 31일, 우리는 베이루트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 거의 모든 이들이 전단지를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면서 “아주 멋져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자청해서 전단지 배포를 돕기까지 했다.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한 경찰은 전단지를 받고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알려 주었으며, 운전하던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차를 세웠다. 그 중 어떤 운전자들은 우리가 자신을 지나칠까 봐 경적까지 울려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도 했다.

거의 모든 가게들이 가게 바깥의 눈에 띄는 자리에 ‘대안적인 삶’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몇 군데에서는 우리 대신 전단지를 붙여 주기도 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카운터에다 전단지를 조금 남겨 두었다. 베이루트 거리는 온정과 사랑이 넘쳐서 우리는 7시간 만에 약 1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 줄 수 있었다.

다음 이틀 동안 베이루트에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한 택시 기사는 우리에게 “비가 마치 신의 축복 같네요.” 하고 깨달음이 담긴 말을 건넸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드물었지만 우리는 아랑곳없이 길가 처마 밑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채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채식이 영적인 진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다. 폭우도 우리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자원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베이루트에서 우리는 유명한 영국 여성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녀는 전에 30년 동안 히말라야의 산비탈에서 살았고 현재 베이루트에서 18년째 살고 있는데, 자신의 아쉬움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베이루트를 방문한 목적을 알고 난 후 그녀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많은 질문을 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스승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스승님의 견본책자한 권과 ‘대안적인 삶’ 전단지 천 장을 갖고 떠나면서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몇 번이나 표했다. 우리가 시리아로 가고 있을 때 그녀는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 다짐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뭔가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이루트를 떠나기 전, 우리는 그곳의 최대 영자 신문사인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 ‘대안적인 삶’이 신문에 실려 중동 지역 9개 아랍 국가에 배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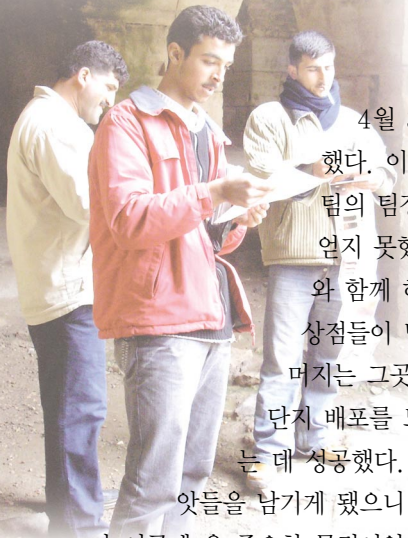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시리아

### 다마스쿠스



4월 3일 오후, 우리는 두 번째 행선지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했다. 이 나라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팀의 팀장과 여행 가이드, 여러 팀원들이 애써서 협상에 나섰지만 좋은 소식을 얻지 못했다. 4월 5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했다. 가이드와 함께 하루 관광을 하던 중 한 기독교 교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는 상점들이 몇 곳 있었다. 이에 우리는 서로 역할을 나눠서 일부는 물건을 사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매우 유머러스한 우리 가이드도 성실하게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신의 사랑을 그곳 사람들과 나누는 데 성공했다. 그날 많은 전단지를 나눠 주지는 못했지만 시리아 곳곳에 이 빛의 씨앗들을 남기게 됐으니 훗날 이 빛들이 점점 더 자라 커질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중요한 목적이었다!

마지막 날 아침, 떠나기 전 우리는 귀한 시간을 활용해 교차로에서 신의 사랑을 나눴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경찰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약 1천 장의 전단지가 20분 만에 다 나갈 정도였다!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어린 거지들이 전단지를 함께 배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우리가 탄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할 때 보니 이 거리의 천사들이 길가에서 바쁘게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신의 기적과 사랑의 힘을 목격하는 듯했다!



## 이스라엘

### 텔아비브



4월 7일, 세 번째 목적지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스승님이 예전에 이곳에서 강연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앞서 두 곳에 비해 이곳에서는 모든 일이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날씨 조차 도와주는 듯 비가 그쳤다. 원래 영국으로 이사갔던 전에는 이 지역의 연락인이 이번 전단지 배포 활동을 위해 미리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헤브라이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된 전단지 10만 장을 준비해 놓는 한편 식품, 의류, 주거 공간, 교통수단, 오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지역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주간지에 '대안적인 삶'의 내용을 게재했다. 우리가 텔아비브에 도착한 다음날 '대안적인 삶'이 실린 이 신문이 5개 대도시의 가정에 배달되어 그 주에 이스라엘의 50만 가구가 동시에 스승님의 자비로운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틀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4만 4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방적이어서 전단지를 받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몇몇 채식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온 것에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었고, 대체의학에 종사한다는 한 채식주의자는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강조했다. 많은 가게 주인들이 손님들이 가져가도록 가게 안에 전단지를 비치하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 예루살렘의 큰 시장에서 만난 빵집 주인은 몇 년간 채식하고 있다며 신이 나서 얘기하면서 자신은 채식의 이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멀리서부터 이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와 준 것에 고마워했다. 그는 이튿날엔 일을 하루 쉬고 우리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겠다고 하며 곧바로 많은 전단지를 가져가 배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이튿날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알려 주면서 그에게 많은 분량의 전단지를 남기며 예루살렘에서 이 고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텔아비브 시장에는 입구마다 꽤 위협적인 모습의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부근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비번인 몇몇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 같이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사진을 찍고 다음날에도 그곳에 올 것이냐고 물었다. 그 중 한 군인은 현재 의대생인데 나중에 세상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나누는 이상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는 대학 친구들에게 나눠 줄 전단지를 많이 요청했다.

## 요르단

### 암만

4월 10일, 드디어 마지막 행선지인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97%가 무슬림인데, 우리 여행 가이드는 보기 드문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전단지를 읽은 후 깊은 감명을 받고선 이와 같은 좋은 내용을 나누기 위해 자기 나라에 와 준 것에 크게 감사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안배하고 협상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전단지 배포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활동에도 동참해 우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우리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전단지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포스터를 붙이는 도중 만난 한 사람은 버스 정류장의 은행 광고가 붙어 있는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한 관광버스 회사 사장이 자신의 회사 버스에 포스터를 붙이도록 허락해 주어서 ‘차량 광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암만에는 입문한 지 3개월 된 두 명의 동수들이 있었는데, 둘 다 요르단 대학교의 대학원생으로 번역과 미술 디자인을 통해 스승님의 일을 돕고 싶어했다. 그들이 가세한 덕분에 우리 일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교통과 식사, 경찰과의 협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매일 저녁 우리와 단체명상을 마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마침 그 지역의 관광·호텔 경영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대학 학장이 직접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의 채식주의 이상에 대해 적극 후원해 주었다. 이 대학교는 중동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관광·호텔 경영 대학으로서, 주변 국가의 많은 주방장과 호텔 매니저들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채식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삶과 미래의 호텔 경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호텔 매니저도 채식주의자였는데 고맙게도 우리를 위해 맛있는 채식 뷔페를 마련해 주었다.

암만에서의 길거리 배포 활동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루 동안 거의 2만 5천 장의 전단지를 나눠 줄 수 있었다!



4월 12일, 요르단 사형들과 함께 지역 신문사를 방문해 광고 협의를 가졌다.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티셔츠에 인쇄하고 여행 가이드와 함께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인 느보산(Mt. Nebo)에 가서 최선을 다해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이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

## 스페인

### 한 도시에서의 활동이 스페인 전역을 깨우치다

발렌시아 센터 (원문 스페인어)



매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발렌시아 시에서는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라스파야스(Las Fallas, 불꽃이라는 뜻)’가 열린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스페인 각 지역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들이 몰리는데, 발렌시아 전체가 음악, 예술, 패션 쇼, 환상적인 불꽃놀이 등 온갖 공연으로 가득 찬다. 물론 인파도 끊이지 않는다.

올해 행사의 절정이 마침 주말과 겹쳐 참가자의 수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발렌시아 센터 동수들은 이 기회를 잡아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스페인 전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능

한 한 많이 배포하기로 했다. 마드리드(Madrid), 그라나다(Granada), 알메리아(Almeria) 등지에서 온 동수들도 배포 활동을 도와주었다.

축제가 열리는 주 내내, 동수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었다. 전단지를 배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기차역과 전철역, 그리고 패션 쇼 출입구, 불꽃놀이 행사장과 같이 당일 축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와 축제의 주요 기념물(창조와 파괴의 힘을 표현한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는 곳을 재빨리 간파한 동수들은 주말이 되자 들쭉 짝을 지어 이런 주요 행사장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인파 속을 다니며 버틸 수 있는 힘과 의욕을 얻은 동수들은 닷새 만에 1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돌릴 수 있었다! 이 한 도시에서의 홍보 활동으로 스페인 전역에 거의 스승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부활절 휴가 기간에는 스페인 남부인 말라가(Malaga)와 세비야(Sevilla) 부근에서 연달아 활동을 펼쳤다. 말라가의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주변 지역을 운전하고 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밤에는 돌아와 단체명상을 하면서 8개 도시에서 총 8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스페인 각지의 동수들과 합동해 처음으로 전단지를 나눠 준 이번 활동을 통해 동수들은 서로를 보다 잘 알고 긴밀히 협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다음번 활동을 위한 탄탄한 유대를 쌓을 수 있었다. 🌂



## 서아프리카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

토고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토고(Togo),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 베냉(Benin)의 포르토노보(Porto-Novo)의 센터 동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 활동을 하는 동안 전단지가 사람들에게 미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친 아름다운 영향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여성은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자녀에게 주기 위해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한 초등학교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전단지를 몇 부 부탁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자기 방에 전단지를 붙이고 나서 완전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으며 콩 제품이나 밀고기로 만든 케밥을 주문해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떤 교사는 학교의 직원과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이에 학생들이 그 전단지를 부모님께 보여주자 학부모들은 채식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하며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음식으로 바뀌도 좋다고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전단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자 동수들은 로메 대학교(Lome University)에서 1천 부를 돌렸다. 대학생들의 호기심이 매우 커서 전단지를 나눠 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 인터넷 카페에서 전단지에 적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다 많은 채식 정보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아 갔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에 채식 식당이나 채식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품점이 새로 생기면 채식을 계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동수들은 학생들이 먹을 것을 사는 곳에 가서 상인들에게 학생들에게 채식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을 가지고 캠퍼스 주위의 옥수수 밭을 찾은 동수들은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농업의 고귀함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었다.

이웃한 모든 곳에서 전단지를 돌린 후 두 번째 계획에 착수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계속 나눠 주었다. 동수들은 이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활동을 펼칠 준비를 했다. 스승님의 힘과 축복이 거리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바다에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코트디부아르



동수들은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의 수도인 아비장(Abidjan)에서 '대안적인 삶'을 배포할 곳을 네 군데로 나누기로 했다. 첫 번째 지점은 소르본느 광장(Sorbonne Place)이었다. 이곳은 최대 500명 정도가 모여 정치, 영성, 종교,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사람들과 함께 전단지 내용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채식에 대한 대중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대안적인 삶'의 중요성을 증명했으며,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사람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완전 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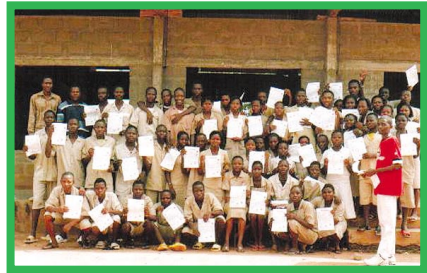
두 번째 장소인 공공대로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했다. 세 번째는 시청이었다. 채식의 메시지는 시청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선사했으며 신랑신부와 그들의 부모 모두 행복한 결혼을 위한 스승님의 축복과 더불어 모든 중생들을 향한 이 자비와 사랑, 비폭력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마지막 장소는 어느 주차장이었는데, 마침 코트디부아르 직공 연합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동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자 곧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대안적인 삶’에 대해 아무 이의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통해 건강과 장수를 돕는 영양소가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병에 걸릴 일이 없다는 사실과 필수단백질을 콩, 옥수수, 쌀, 땅콩, 견과류, 콩 종류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베냉

### 포르토노보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4일과 27일, 포르토노보 동수들은 중학교 두 곳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사랑 속에 동수들은 이들 학교의 직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처음 방문한 학교의 교사들은 ‘대안적인 삶’ 활동에 대해 매우 기뻐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기념품으로 잘 간직하라고 애기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전단지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 교직원들은 동수들에게 나중에 한 번 더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포르토노보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에 매우 기뻐하면서 이것이 아마 많은 베냉 사람들이 채식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채식 요리법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여겼다.



## 부르키나파소

동수들은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채식을 선택하자’라는 현수막을 만들고 시정부 측에 강연회 개최와 수도 전역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을 신청했다. 동수들은 현재 이웃 나라 중에 센터가 없는 말리(Mali)와 니제르(Niger)를 방문해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고 채식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미국

### 필라델피아

## 꽃 박람회에서 영성과 꽃이 활짝 피어나다

펜실베이니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필라델피아, 뉴저지, 메릴랜드 주 동수들은 2006년 3월 5일에서 12일까지 열린 필라델피아 꽃 박람회에 참석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연례 꽃 박람회는 개최 기간 중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한다.

동수들은 행사가 열리는 대형 홀의 입구마다 서서 행사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주중에는 현지 필라델피아 동수들이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 주었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 동수들이 꽃 박람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현지 동수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했다.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 준 모든 동수들은 신의 축복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사저는 어떤 남자가 전단지를 본 후 그녀에게 이것은 신이 주신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줄곧 채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아

직도 닭고기와 달걀을 못 끊고 있었는데 이 전단지를 보는 순간 신의 강력한 메시지를 느끼고선 완전 채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저는 같이 걸어가는 두 친구에게 전단지를 건넸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거절했다고 한다. 그들은 전단지를 함께 보며 길을 건너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분 뒤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원래 거절했었던 친구가 전단지를 요구했다. 그녀는 이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다 읽고 난 뒤 매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선 가던 길을 되돌아와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받으러 왔다고 얘기했다.

한 여성은 당뇨병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정보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 "전단지를 받으려고 여기에 왔어요." 하고 말했다.

시내로 전단지를 배포하러 갔던 동수들도 사람들의 수용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으며 걸어가면서 흥미로운 표정으로 전단지를 자세히 읽었다. 어떤 사람은 동수의 어깨를 두드리곤 전단지를 가리키며 "저도 한 장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마지못해 전단지를 받더니 전단지를 읽은 뒤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을 딱 맞게 주셨는데 하마터면 거절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동수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채식을 하러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고 노력해 왔으며 이 전단지에는 자신에게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꽃 박람회 마지막 날에는 군중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찍 떠날 수도 있었지만 동수들은 모두 마지막까지 남기로 결정했다.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값진 보석과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참가한 모든 사형사자들은 스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고귀한 기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렸다. 🌻

## 대한민국

### 생명 사랑, 채식 실천

한국 뉴스그룹

최근 한국 센터들은 대안적인 삶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안적인 삶 홍보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모든 관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 전역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메시지 전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돕고 모든 센터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팀은 인터넷 게시판도 개설해 사형사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이 게시판은 또한 각 센터의 행사 일정을 제공해 각 센터의 활동을 서로가 미리 파악해서 참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대안적인 삶’ 활동 덕분에 한국 사회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중매체도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예전에는 언론에서 채식주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짧게 다루어 달라는 요청조차 받아 들여지기 힘들었다. 요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TV 프로그램, 신문, 잡지에서 채식주의와 동물 보호에 대해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TV 방송 기자들이 서울 센터의 SM 채식뷔페에 자주, 거의 매일 찾아와 채식에 대해 촬영을 하고 있다. SM 채식 뷔페의 채식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TV 프로그램도 방영되었으며, 유명한 월간지인 『한겨레 21』은 최근 채식주의에 대해 커버 스토리로 크게 다루었다.

## 서울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9일, 서울과 영동의 동수들은 여의도 벚꽃 축제에 참가해 채식을 홍보했다. 다채로운 색깔의 부직포를 사용해 수십 명의 동수들이 딸기, 포도, 옥수수 등 아주 귀여운 야채 모양의 액세서리를 제작해 모자로 쓰거나 몸에 걸쳤다. 동수들은 총 1백여 개의 액세서리를 제작했으며, 채식에 대한 표어를 담은 피켓도 만들었다. 서울 센터의 주 명상홀과 보조 명상홀을 가득 채운 헌신적인 동수들은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제작한 후 12시까지 선행사를 하고, 90여 명의 사형사자들이 벚꽃 축제에



#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밝은 색상의 티셔츠, 귀여운 야채 액세서리, 피켓을 활용한 '생명 사랑, 채식 실천' 홍보가 큰 관심을 끌었다.



나가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전파했다.

모두 '생명 사랑, 채식 실천' 이 적힌 밝은 색상의 티셔츠를 입었다. 동수들은 귀여운 야채 액세서리를 걸치고 피켓도 들었다. 모두 한 그룹으로 모여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행진해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단지도 나누어 주었다.



큰 스피커를 행렬의 맨 앞에 세우고 특별히 작곡한 노래를 틀었다.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한 사형이 작사하고 전문적인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노래 후에는 전문적인 가수가 녹음한 흥겹고 의미 깊은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이 내레이션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이 노래와 내레이션이 자동으로 반복되어 흥겨우면서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



축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피켓이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전체적으로 동수들이 축제에 걸맞게 아주 귀엽고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반응도 매우 좋았다. TV 방송 기자들도 이 행사에 대한 촬영을 했으며 경찰들도 동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라며 채소와 콩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TV 방송 기자가 채식하는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부산



부산 센터는 시내 여러 지하철역에 조명이 들어오는 대형 ‘대안적인 삶’ 포스터 광고를 설치했다. 원래 2개월만 광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눈을 사로잡는 이 광고가 최소한 1년간 지속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대안적인 삶 포스터가 빛을 발하다.

## 광주

광주에서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중 교통수단이 버스가기 때문에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버스에 광고하기 시작했다. 전단지를 버스 좌석의 뒷면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우선 한 달간 버스 20대에 광고하기로 계약했다. 버스 1대당 10개의 좌석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이 광주 지역 버스 광고는 약 1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월 26일, 광주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채식 시식회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식회에 참여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행사를 통해 광주의 사형사저들은 채식과 생명 존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으며, 사심 없이 남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 광고.



##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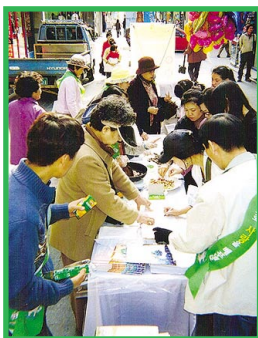
3월 31일, 서울 동수들은 춘천 명동을 찾아 현지 동수들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안적인 삶’을 홍보했다.

채식을 홍보하는 좋은 취지라는 것을 알게 된 명동상가 번영회에서 상가 중앙 통로를 사용하도록 배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해 준 덕분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홍보 행사를 하게 되었다. 동수들은 채식 시식회도 제공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 준비한 음식이 예상보다 빨리 동이 나 버렸다. 이 밖에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도 전개했는데 단시간에 6백여 명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춘천에서 전개된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

## 스리랑카

### 신의 사랑이 스리랑카에서 싹터 자라나다

기록: 포모사 가오승 주위평 사저와 차이원웬 사저  
정리: 포모사 타오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인도 동남쪽 가장 끝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그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인도 양의 진주'로 알려져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7일, 포모사 동수 22명은 신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나라로 출발했다. 동수들의 밝은 분위기는 도착하는 즉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이곳 연락인 부부가 미리 안내해 놓은 한 동수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연락인이 마련한 계획에 따라 동수들은 현지 동수들과 섞여 세 조로 나뉘어 매일 사람이 많은 변화가에서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월 2일에는 영성 세미나와 채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3월 28일 아침 일찍부터 스리랑카의 작열하는 태양(섭씨 36.7도나 되었다.)에 맞서 임무를 시작했다. 불빛이 어슴푸레한 식료품점 앞에 차를 세운 동수들은 달콤하고도 친절함 미소를 띠고 가게에 들어가 그 즉시 가게 앞에 포스터를 붙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포스터를 붙이자마자 신의 무한한 사랑이 가게를 에워싸고 환히 비추는 듯했다.

이날 동수들은 1만 5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단순하고도 다정한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오랫동안 채식을 해 왔다고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갖다 줄 전단지를 많이 요청했다. 한 채소가게 주인은 자기 가게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기둥에 직접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다. 콜롬보의 쇼핑몰에서 전단지를 받은 한 주민은 연락인 사저가 달고 있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선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 그는 스승님이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스승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입문하고 싶어하면서 다음날 방법법을 배우러 오라는 우리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콜롬보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통해 입문을 신청한 최초의 예비 입문자가 되었다.

스리랑카는 싱할라어와 영어 두 개의 국어를 쓰는 나라이다. 첫날 전단지를 나눠 주던 중 일부 사람들이 싱할라어로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글은 모른다는 것을 안 동수들은 연락인에게 2개 국어로 된 전단지 2만 5천 장을 급히 인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다음날 4시간 만에 거의 모든 전단지가 나갔다. 그래서 5만 장을 추가로 더 인쇄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는 콜롬보의 변화가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일을 거의 마칠 무렵, 지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했는데 마침 채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스리랑카 동수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한 주민이 우리 단체를 마음에 들어하며 동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음료수를 대접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 동수들은 그의 성심 어린 초대를 받아들였고 답례로 일요일에 있을 세미나에 초대했다.

3월 30일은 선거일이었다. 동수들은 연락인의 충고에 따라 이날은 그냥 숙소에 머물면서 전단지 배포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채식주의자와 그의 친구가 우리를 찾아왔다. 아무 연락도 없었던 그들의 갑작스런 방문은 신의 놀라운 안배인 듯했다. 그들은 채식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관음 가족들이 채식을 알리는 방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날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을 때 한 사저가 없어졌다. 동수들은 30분간 살살이 찾아봤지만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걱정스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무렵, 한 남자가 손에 전단지를 들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보여서 우리는 얼른 다가가 “누가 이 전단지를 주던가요?” 하고 물었다. 우리는 그의 대답으로 사라진 사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저가 여유롭게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큰 감명을 받았다.

전단지를 배포하던 도중 동수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보통은 의혹을 품은 표정이었지만 동수들이 성심껏 대답해 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자 그들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스승님의 사랑이 이미 스리랑카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음이 확실했다.

신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가져다준다. 최근 방법법을 배운 19세의 스리랑카 소년도 전단지 배포 활동에 동참했는데, 첫날에는 부끄러워 차에만 있더니 나중에는 동수들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가장 앞장서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그는 자기 몫을 다 나눠준 뒤 다른 동수들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수시로 동수들의 안전을 챙겼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흘렀다. 이런 눈에 띄는 변화를 통해 동수들은 스승님의 일을 할 때 얻어지는 축복으로 등급이 빨리 올라간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방문 마지막 이틀인 4월 1일과 2일에는 세미나와 채식 시식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방 경험이 오래된 몇몇 포모사 동수들은 다른 포모사 동수들과 현지 동수들을 데리고 물건 구매, 재료 준비, 의자와 화로 임대, 음식 재료 다듬기에서부터 꽃꽂이, 스승님 법상과 출판물 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세심하게 지도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동수들은 마음을 모아 풍성한 채식 요리, 디저트, 채식 칵테일을 준비하는 어려운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다. 그 중 스리랑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두와 곤약 같은 요리들에 모두들 놀라워하며 감명을 받았다.

마지막 날 단체명상에서 방편법 수행을 하는 한 사저가 소감을 얘기했다. 그녀는 2004년 쓰나미로 남편을 잃고서 한 달 뒤에 방편법을 시작했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포모사 동수들이 도착하기 3일 전부터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 꿈속에서 3일 뒤에 이 나라가 빠르고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계시도 받았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이날 단체명상에서 화신 스승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다른 멋진 체험들도 했다. 이제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루빨리 입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신실함과 갈망에 감명을 받은 포모사 동수들은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라고 격려하는 한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신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 홍콩

### 영성 예술 전시회와 채식 홍보를 접목시키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1일 토요일, 홍콩 센터는 시완허 문화센터에서 ‘고아한 채식 예술-대안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어 천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끌었다.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채식을 접목시킨 이번 전시회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제인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알리면서 채식 생활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충분히 펼쳐 보였다. 시완허 문화센터의 관장은 우리가 비영리단체로서 채식을 장려한다는 것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그는 원래 제목이었던 ‘대안적인 삶’에다 ‘고아한 채식 예술’을 붙여서 ‘대안적인 삶’의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메시지와 예술 전시회를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주었으며 전시회장 임대료를 35%나 할인해 주기도 했다.

전시회장은 동수들의 세심한 손길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제1 전시 구역에는 스승님의 만세등 9점이 전시돼 입구에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빛을 퍼트렸으며 이어서 '법희 충만', '천상의 꽃', '달밤', '독립심' 등 스승님의 그림 작품 15점이 전시되어 수행의 여정을 보여 주었다. 이 밖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출판물과 시집, 그리고 천의 및 천상의 보석을 소개한 양장본과 다른 수공예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각 전시 구역 앞에서는 담당 동수들이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에게 작품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구역은 채식 홍보관이었다. '대안적인 삶'의 대형 포스터 2장과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사진들, 10여 가지가 넘는 채식 요리책,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시되었는데 이 모든 배열이 '대안적인 삶'에 중심을 둔 것이었다.



주방 팀 동수들은 열 가지가 넘는 맛있는 채식 요리를 준비해 손님들에게 채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손님들 중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거리를 거닐다 전단지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며칠 전에 표를 얻어 오늘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 채식 요리의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채식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고 채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사의 목적이었다.

한 여성은 음식을 다시 한 번 맛보기 위해 두 번이나 줄을 서는 번거로움도 감수하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어서 또 맛보려고 해요. 육식을 하면 업을 치러야 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가족들에게 채식 요리를 해주겠어요."

동수들은 채식 요리법과 채식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전시회 동안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콘서트 DVD와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부드러운 스승님의 목소리가 전시회를 방문한 모든 손님들을 축복함에 따라 모두들 채식 음식과 함께 영적인 분위기를 즐겼다. 몇몇 중년 손님들은 스승님의 그림 앞에 오래도록 서서 이곳이 작품을 감상하고선 나중에 견본책자를 받아 가 전시회장 밖의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힘이 그들 내면을 감동시켰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성한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방해하지 않았다.

방문객들이 떠나기 전, 동수들은 작은 선물과 함께 '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인쇄된 환경 친화적 손가방을 증정하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채식에 대한 이 아름다운 체험을 간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기원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미얀마

### 미얀마에서 사랑의 음식과 생활양식을 장려하다

기록: 포모사 타이베이 정정광 사저  
정리: 포모사 타오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한 미얀마의 인구는 약 5천 3백만 정도 된다. 포모사 동수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미얀마 연락인과의 의논을 통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미얀마의 수도 양곤(Yangon)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해 사랑의 음식과 생활양식을 전하기로 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8일, 10명의 포모사 동수들이 스승님의 충만한 은총과 4만 장의 전단지를 가지고 타오웬 장개석 공항을 출발했다. 동수들은 오후에 양곤 시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인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파악했다. 연락인은 처음에 안전을 고려해 전단지를 사원에 놓아두고 그쪽에서 나눠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위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동수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전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에 연락인은 융통성 있게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동수들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술레(Sule) 탑 사원으로 안내했다. 술레 탑 사원 사람들이 전단지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사원 내에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우리는 20분 만에 수백 장의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었다. 동틀 녘 연락인은 두 사형을 데리고 양곤에서 가장 이름난 사원인 스웨다곤(Shwedagon)으로 향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인파에 둘러싸



여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전날의 경험으로 큰 힘을 얻은 동수들은 세 조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술레 탑 사원, 스웨다곤 탑, 시내의 사원 한 군데)에서 전단지를 돌리기로 했다.

일요일, 스웨다곤 사원에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도착한 동수들은 기도드리러 온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전단지 배포가 순조롭겠다는 전망을 했다. 경찰이 전단지 배포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출가승들까지 전단지를 계속 배포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후원에 동수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나중에 사원 쪽의 제안으로 몇 군데 장소를 정해 전단지를 배포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해서 그 뒤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술레 탐 사원에서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전통 예법에 따라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고 전단지를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다가와 전단지를 받아 갔고 일부는 친구나 친척에게 줄 전단지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전단지를 읽던 표정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전단지를 버리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내로 나간 동수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대중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보행자들은 물론 버스 승객들까지 매우 궁금

해하면서 손을 뻗어 전단지를 요청했고 한 기사는 일부러 차를 세우고 전단지를 받기도 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경찰조차 동수들에게 와서 전단지를 받아 간 것이다. 이에 큰 힘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동수들은 손을 뻗는 모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했다. 몇몇 노숙자들과 어린이들이 거들어 준 덕분에 배포 활동은 더욱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한 기사의 열성적인 도움으로 동수들은 8개 사원을 방문해 경내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전단지를 일부 비치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 기사가 내내 함께해 준 덕분에 동수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2만 7천 장의 전단지를 순조롭게 배포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인 4월 10일, 동수들은 지역 신문에 '대안적인 삶'의 내용을 싣기로 했다. 인기도 있고 인쇄 품질도 훌륭하다며 한 채식 식당의 주인이 추천해 준 『위클리 일레븐(Weekly Eleven)』을 방문했는데, 기쁘게도 회사 직원들은 우리 생각에 매우 협조적이어서 약간의 토론을 거친 후 3주 동안 전면 광고를 내서 미얀마 전역에 신의 사랑을 퍼트리기로 했다. 동행했던 기사가 나중에 친구의 말을 인용해 얘기하기를, 동수들의 이번 활동이 매체의 관심을 끌었고 한 미얀마어판 신문에서 우리의 전단지 배포 활동을 보도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동수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흘렀다.

전단지 배포에 동참했던 모든 동수들은 정치적으로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에서 4만 장의 전단지를 모두 순조롭게 나눠 줄 수 있었던 것을 기적으로 생각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기적이 연달아 일어나 모두 순조롭게 풀렸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의 은총과 인도 덕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



전단지를 주의 깊게 읽고 있는 주민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싱가포르

### 지구를 위해 사랑과 자비로 천을 짜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싱가포르는 총 인구 435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다. 매일 1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중 급행 운송 체계(MRT, 지하철)를 이용하며 280만 명이 버스를 애용한다.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싱가포르 동수들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은 때를 이용해 MRT역과 버스 환승역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기로 했다. 또 MRT역 부근의 쇼핑몰에서도 전단지를 배포했다.

MRT역을 이용해 통근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중 아침부터 시내 중심 상업 지역의 MRT역의 각 출구를 지키고 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의 내용과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국내와 해외에 있는 친구, 친척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무슬림 여성은 남편이 인도 출장을 다녀온 후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으며, 한 남성은 전에 스승님에 관해 들은 적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전단지에 대해 좋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몫으로 더 가져가고 싶어했는데, 그 중에는 미디어코프(Mediacorp) TV 방송국의 배우로서 이미 채식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전단지를 한 묶음 가져갔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여러 채식 식품 아울렛과 식당에도 비치했다. 채식 식당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기쁘게 전단지를 받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식 요리 강좌를 열고 있다는 그는 전단지가 훌륭한 보조 교재가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싶어했다. 그가 앞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강좌를 더 많이 열 계획이라기에 동수들은 기꺼이 전단지를 제공했다. 학생들에 대한 그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동수들은 사원과 우체국, 마을회관, 탁아소, 학교, 병원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특히 싱가포르 종합 병원의 암 환자들의 손에 전단지를 건네면서 이 ‘대안적인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고 환자들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채식의 이로움을 알고 더 많은 희망을 갖게 되길 희망했다.

동수들은 싱가포르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전단지를 건넸다. 매년 천만 명 가량의 여행객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 그들 중에 신이 보내신 사자(使者)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행객 대부분이 관광 명소가 많아서 인기 높은 휴양지인 센토사(Sentosa) 섬을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 한 조의 동수들이 그곳에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물색해 놓았다. 동수들이 선택한 곳은 ‘해저 세계’였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우리는 이제 관광객들이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더 많이 배포할 계획을 가졌다.

현재까지 싱가포르 동수들은 거의 모든 MRT역과 부근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각자의 고장 부근에서도 전단지를 돌렸다. 동수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노력들은 아주 작은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자비로운 스승님은 신성한 실로써 이 작은 노력들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 거대한 사랑의 천을 짜신다. 우리는 이 천이 곧 전 지구를 감싸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의 가피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력은 지구의 모든 중생들의 의식을 더욱 빠르게 고양시켜 사랑과 자비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할 것이다! 🌸

## 인도네시아

### 기쁜 마음으로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에 동참하다

자카르타&메단 센터 연합 보도 (원문 인도네시아어)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전단지가 다 인쇄되자 동수들은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외에도 일간지 사이에 끼워 돌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두 명의 자카르타 센터 사저들은 자녀의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채식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채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읽기 위해 ‘대안적인 삶’ 전단지와 견본책자를 가져갔다.

이 밖에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과 ‘채식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포스터를 여러 대학 게시판에 붙였다. 한 중문판 신문은 우리가 관음법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채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무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료로 실어 주기도 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2월부터 ‘대안적인 삶’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자카르타, 메단, 수라바야, 욕야카르타(Yogyakarta), 덴파사르(Denpasar),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에서 전단지 수십만 장이 배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 또한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이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 고귀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어서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 스승님이 동수들에게 보내신 편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를 통해 힘없는 동물 친구들을 구하는 여러분의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감동적인 노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과 축복으로.

*at*

Dearest ones,

I thank you again for your countless incredible and touching efforts to save the helpless animal friend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Alternative Living" flyers.

May your health also improve.

Love + blessings always,

*at*



# 스승님의 강연에서 얻는 뜻밖의 이로움

종위평 사저/ 포모사 타오웬 (원문 중국어)

관음법문에 입문해 수행을 시작하면 마치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셈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스승님의 출판물을 잘 활용하면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 전 오빠가 일이 바빠서 텃밭에 물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물을 주지 않고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2005년 헝가리 선 행사 비디오를 보던 중 스승님께서 유기농을 하는 어떤 사형과 농작물 재배법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사형은 물도 따로 주지 않고 비료도 필요없으며 땅도 갈 필요가 없는 농작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었다. 나는 ‘포모사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 방법이 가능하긴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밀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씨앗을 사 온 후 텃밭에 사람 키만 큰 자란 잡초를 뽑아내 밭 한가운데에 길게 두었다. 이어서 잡초더미 양쪽에 호미로 길고 얇은 골을 두 개 만든 후 그 속에 씨앗을 뿌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썩이 트기 시작했다. 씨앗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수확하는 시기도 달라졌고, 덕분에 한 번에 너무 많이 거두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니 정말 완벽했다! 물이나 비료도 줄 필요가 없고 땅을 갈지 않아도 되는 재배법이 정말 가능하다니! 그저 골만 파서 씨만 뿌려 놓고 그 뒤에 비가 조금 내리면 얼마 후엔 수확을 하게 된다! 나는 소원을 들어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이 황금시대에는 정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만 봐도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정신으로 기적을 창조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6. 1. 2. 영국 서리

(원문 영어)

만약 그 아이(스승님을 감동시킨 16세의 르완다 소년) 또는 어떤 인간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후에는 영혼,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고결한 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그토록 긍지가 높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그 중 한 어머니는 아이가 위독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20마일(32km)을 걸어서 가까운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한 기자가 나타나 도시까지 가는 길에 그녀와 아이를 태워 주었고 그녀에게 아이 치료비도 좀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 르완다 여성은 깜짝 놀라서 기자에게 “태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정직하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정신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 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아주 형편없고 부정적이라 해도 관음법문을 배우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다 긍정적이 되고 더 신심이 많아지면 얼마나 강력해질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삶을 축복하며 온 세상과 우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모든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열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와 가족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다들 그들에게 운이 없다거나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 소년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여섯 살의 나이로 매일 18시간씩 일하면서 다섯 명의 형제자매와 연로한 조부모를 부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아픈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만 겁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외에도 어디선가 구한 책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겨우 30파운드로 작은 땅덩이와 염소 몇 마리를 사서 치즈와 우유를 얻고 채소를 재배하여 온 가족이 충분히 먹고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낸 그 돈은 기적 이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과는 별도로 그에게 필요한 10배 이상을 보낸 것은 그가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문하지도 않았고 영적이거나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강한 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30파운드만 있으면 영원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그 이상을 가졌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만 파운드가 필요한데 갑자기 10만 파운드가 생기면 그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 소년이 그걸 얻은 것은, 자신이 한 말, 내면의 긍정적인 정신, 가족에 대한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또한 강력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처럼 운 좋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주고 스스로 얻어낸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힘으로는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인 거지요! 여러분이 바로 다른 이들의 기적이며 여러분 자신과 불운한 사람들의 기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온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10배를 더 얻은 그 열여섯 살의 소년에게 있어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 어떤 게 천국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그 손으로 불운한 사람들에게 삶을 유지할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생각과 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매일 만들고 있는 기적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베풀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뭔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50센트를 쥐서 파곤한 차를 마시게 한다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이에게 1파운드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거나 약국에 가야 하지만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약을 사다 준





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겐 그게 기적이지요. 마치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 수 있게 됐을 때 “아, 이건 기적이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대중 웃음)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면부지의 여자(스승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농담하심.)를 보러 오는 게 기적입니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지요! (대중 웃음)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겐 작은 기적도 아니고 커다란 기적이지요. 그 르완다 소년에게는 30파운드가 크나큰 기적입니다. 게다가 그가 얻은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돈보다 10배, 12배나 많아서 온 가족이 영원히 아니, 최소한 평생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마 그 소년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염소 치즈 사업이 아니라 농장 같은 것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연로하신 조부모께 약을 사 드릴 수도 있을 것이며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소년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울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할 테니까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순히 그와 그의 가족만 도운 게 아닙니다. 그 효과는 계속 이어집니다. 친절은 더 많은 친절을 낳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 방식인 거지요. 우리는 자비심을 낳고 그것을 가꾸고 키워내서 온 세상에 퍼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더욱 나아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영향을 미치며 영적인 면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부에 영향을 주고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평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현재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아일랜드의 전쟁도 끝났고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등 한꺼번에 다 떠올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일본 천황이 전세계에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 찬 편지를 읽으며 전쟁 희생자에 대한 유감과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지요. 경제적·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압박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 국제적인 힘의 압박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그런 압력을 받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스트랄계는 아직도 정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괜찮고 굳건할 것이며 점점 더 좋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고양됐는지 보십시오. 재난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스트랄 에너지의 업장이니깐요. 하지만 그 외에 가능한 것은 모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과거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승님께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심.) 이런 네모난 조각에 대고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면



세상 저편 끝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작은 ‘아이팟’에 노래 천 곡을 넣을 수 있지요. 아무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는 껌처럼 작은 막대에 300곡이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오늘날에는 수십만 마일 떨어져 있어도 사각형의 물체만 갖고 있으면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디오 장치, 음악, DVD 등 온갖 것이 있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손안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년 전, 혹은 70년, 50년 전만 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은 항상 기적의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기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가면 내면에 있는 기적을 가지고 일하고 그 기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여러분 주변과 전세계로 퍼트릴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몸 전체가 기적입니다. 몸을 활용해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기적 말고는 다른 많은 기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볼 수 없게 되어서야 ‘세상에! 나도 전에는 기적이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매일 신께 감사하십시오. 우주가 잘 지탱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힘 때문에 지구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며, 또한 시계가 없어도 달이 매달 제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눈조차 여러분의 꽃밭과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가져다줍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거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드는 데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기적의 손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즐기면서 그것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니까요.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으로도 천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전부 다 빠지고 나서야 “오, 내 기적이 사라졌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중 웃음)

우리는 주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기적입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밤에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다 보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몸의 모든 조직들이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뭔가 잘못되어야만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것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땐 때가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몸이 원활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몸과 마음, 두뇌가 함께 협조할 때라야 비로소 여러분은 제대로 기능하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

## 실제 경험이 빈 이론보다 낫다

청하이 무상사/ 1992. 4. 25.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43

옛날 중국에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이 다가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지요. “장군이 죽으면 누가 그 뒤를 이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려서부터 병법을 읽었고 병법을 논하기로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니 그가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그러나 장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은 큰소리만 칠 줄 압니다. 그는 병법의 이론에는 밝으나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군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왕은 그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군의 아들이 뛰어나다고 여겼던 거지요. 그의 아들은 병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서 막힘없이 답했기 때문에 왕은 그의 아들을 대장군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백전백승한 것과는 달리 백전백패했습니다. 책으로만 봤지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데다 병서에만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결코 책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각 지방의 지형과 풍수,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병법 이론만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적군의 부대도 다르고 아군의 사기와 체력도 다르며

때로는 풍토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쟁을 할 때는 책을 그대로 베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의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서 실제적인 경험을 직접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훈련되면 차츰차츰 습관이 들게 됩니다. 🌸





# 스승님의 농담

## 의견일치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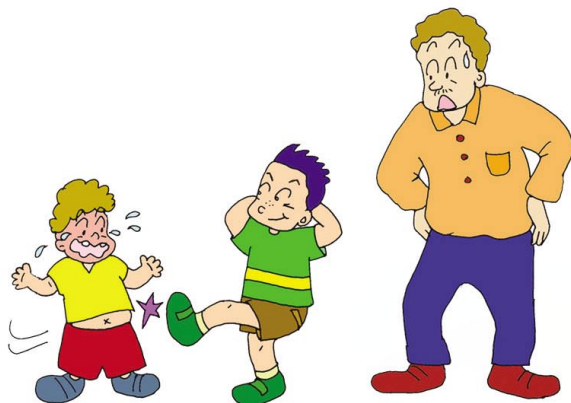
어떤 부인에게 결혼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사위 둘이 동시에 나더러 오라고 그러네요! 동부에 있는 사위는 서부로 가라고 하고, 서부에 있는 사위는 동부로 가라고 하잖아요!” 🌸



## 제 잘못이 아니에요!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마구 야단쳤어요. “어떻게 동생 배를 걷어찰 수가 있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죠. “그건 개 잘못이예요, 아빠. 누가 돌아서래요?” 🌸



## 가장 인내심이 많은 청중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떤 사람이 강연대에서 끊임없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떠들자 청중들은 슬슬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10분쯤 뒤에는 한 명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말을 마친 그는 내려와서 그때까지 남아 있던 남자에게 다들 가 버렸는데 왜 아직 남아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대꾸했지요. “아, 제가 다음 연설자거든요!”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7/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7/jk1.htm> (포모사)



## 조건 없이 주고 나머지는 신이 돌보게 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9. 10. 30.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5(상)**

질문: 스승님, 저는 길에서 종종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돈으로 음식을 살지, 술이나 마약을 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스승님: 그냥 주세요. 어쩌면 그가 정직할지도 모르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의심합니까? 그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잃고 싶어한다면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에게 자비심이 있지만 신경쓰세요.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가 당신을 속이려 하든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신문에서 멋진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앞니가 많이 빠진 채 잇몸을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는 간판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왜 거짓말을 하나요? 나는 술 1파인트가 필요합니다. 40온스도 좋아요.” 하고 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도 없이 환하게 웃고 있던 사람 앞에도 간판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요!”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세요. 그들은 이미 학대받고 존엄성도 잃었는데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 이 이상 상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



## 사소한 것에서부터 동정심을 배워라

청하이 무상사/ 1993. 3. 20.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37

질문: 자신에게 동정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짜로 동정심이 있는 척해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키워야 하나요?

스승님: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대중 웃음) 동정심이 없다면 적어도 배울 수는 있을 겁니다. 가짜로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영어를 할 수 없는 학생이라도 선생님을 따라 외울 수 있듯이요. 영문학의 어휘를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일 몇 구절씩 배우고 몇 쪽씩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배워야 합니다. 가짜로 동정하는 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동정하는 법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곳에서부터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동정심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

## 가장 높은 세계는 사랑과 은총으로 다스려진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상)

질문: 우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우주의 법칙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더 높은 천국의 차원에는 오직 사랑과 은총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법칙이지요. 그러나 이런 물질세계와 같이 우주의 낮은 영역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의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과 연결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과 은총만을 누립니다. 신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



# 우유를 마셔도 되는가

칭하이 무상사/ 1999. 8. 4.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4

나는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기와 계란, 동물 살생이 안 된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살생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그런 것을 자주 먹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먹을 때 거북한테도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자신에게 달렸다고 말해 줍니다. 나 자신은 우유가 생산되는 방식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인도처럼 인도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유를 얻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유를 먹어 주지 않으면 때로 젖소는 우유가 너무 차게 돼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로 우유를 짜고 가뉘 놓고 사육하는 방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업 국가에서는 소를 가뉘 놓고 보다 많은 우유를 얻기 위해 억지로 많은 화학물질을 먹입니다. 또는 약물을 이용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게 하지요. 그 결과 젖소는 뼈가 약해져 거의 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많은 젖소들이 장과 위가 밑으로 처졌으며 우유를 과다하게 생산하는 바람에 뼈가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가로 생존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소의 고통이라 해도요.

나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소를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를 정상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몸에 지나치게 많은 화학물질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 과도한 몸무게는 소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어서 서 있지 못하고 병들게 합니다. 소의 내장이 몸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도로 집어넣고 꿰매는데, 꿰매 때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방식으로만 일하지요. 목동이든 누구든 아무나 와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그냥 꿰매니다. 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유순한 동물을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얻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인류의 잔인함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광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니까요. 염마가 젖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이에게 우유가 필요합니다. 아파서 마시거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겐 우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극단적인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보는 게 싫은 것뿐입니다. 우유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 우리의 둘째 어머니, 젖소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0

성경에서 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친구가 되도록 동물을 창조했다.” 동물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는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모유를 못 먹는 아이나 다른 존재,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우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유에서 치즈를 만

들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베푸는 것을 꺼리지 않지만 그건 자연스런 방식에 의해서일 때 얘가지 지금처럼 기계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내가 극단적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관음법문

을 수행하기 전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많은 아기들의 둘째 엄마인 셈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부분이 우유를 먹고 크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를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중국과 어울락 같은 아시아에는 그와 같은 둘째 엄마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여성이 아기에게 젖 먹이는 걸 번거롭게 생각해서 원치 않을 때는 자기 아이가 있으면서 모유가 풍부한 다른 엄마를 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아이가 다 모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을 유모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유모를 도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둘째 어머니, 또는 양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머니한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모라고 부르지 않고 대모(代母)나 수양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친어머니 다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소를 도살하는 것은 우리의 유모를 도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나는 창조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무지함에 정말 경악하곤 합니다! 🌻



수행 수상록

## 스승님에게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기쁨의 빛/ 포모사 타이중 (원문 중국어)

얼마 전까지 TV에서 은행 현금카드 광고가 자주 나왔다. 나는 그 광고를 여러 번 보고선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꼭 은행에서 물건값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은행에 돈을 갚는 것과 같다. 마치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 내 기억으로는, 스승님께서 물건을 구입할 때 먼저 당신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신 후 돈이 없으면 사지 않을뿐더러 외상이나 할부 구입은 결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현금카드에 대한 나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는 TV에서 카드 광고가 나올 때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스승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부추기시지 않아. 카드를 사용하는 건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일이야. 어쨌든 쓴 돈은 갚아야 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 만약 스스로 잘 절제하지 못하고 물건을 너무 많이 샀다가 계산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에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광고의 영향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TV 뉴스에서 카드 빚을 지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우리 온 가족은 스승님께서 당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린 딸조차 이제는 스승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사용해 아이와 소통할 때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아이도 쉽게 받아들인다. 말과 행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노르웨이



##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화의 나라

남저우 사형/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는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지구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이 나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전쟁 중인 쌍방의 평화 협상에 조력자 역할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고, 몇몇 상황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맡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현재 스리랑카의 평화 과정 속에서 노르웨이는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의 전면적인 평화 협상에 협조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006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는 휴전 협정 및 이행, 다음번 평화 회담에 관한 사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르웨이는 케냐와 지역 협력 기구인 '정부간 개발기구(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의 지원 속에 수단(Sudan)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과 더불어 노르웨이는 충분한 국제적 지원을 조직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평화 과정에서 평화유지군이 우위를 차지하

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의 평화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를테면, 오슬로 중동 평화안은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협정에 서명하는 결실을 낳았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노르웨이는 '평화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기구인 '특별 연락 위원회(Ad Hoc Liaison Committee, AHLC)'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과테말라의 평화 과정에도 관여해 1996년 오슬로 평화 협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 협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 사안들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가 이런 평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나라가 분쟁과 관련된 아무런 이익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유일한 관심사는 평화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평화 과정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싶다는 노르웨이의 바람을 통해서도 확연해 보인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은 모두와 연관돼 있으며 그 어떤 나라도 무력 충돌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에 대한 해결책을 유엔에게 미룰 수 없다는 선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세계적 평화 협상에서 펼치는 노르웨이의 모범적인 역할은 모든 국가가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한 전쟁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하나이니까 말이다. 🌂

## 전세계적 대체 에너지 시대를 주도하는 유럽연합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3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은 '경쟁성 있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 전략'이란 제목의 새로운 유럽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주 1) 기존 에너지 산업의 강력한 로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서는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도록 튼튼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주도한 이후 세계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2005년에 발효된 이 의정서는 전세계를 완전히 대체 에너지 시장으로 전환시켰다. 유럽연합은 회원 국가들에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명확한 기한까지 설정했으며, 2010년에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21%

까지 높이겠다는 숭고한 목표를 세웠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유럽연합 사람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산물이다. 2006년 1월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민의 40%가 단가가 좀 높더라도 재생 자원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주 2)

2006년 4월 2일, 유럽연합은 재생 에너지 전환과 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몇몇 회원국에 대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조치는 약속을 지키려는 유럽연합의 결심을 보여주는 한편 다른 지역에 대해 강력한 사례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국민들은 용기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모든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크나큰 이로움을 주게 되었다. (주 3) 🌂

주 1: [http://europa.eu.int/comm/energy/green-paper-energy/index\\_en.htm](http://europa.eu.int/comm/energy/green-paper-energy/index_en.htm)

주 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6/66&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주 3: <http://www.euractiv.com/en/energy/eu-states-feel-heat-renewable-energy-biofuels/article-153938>

#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 상하이 환경회의가 중국의 새시대를 예고하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4월, 상하이에서 역사적인 일이 발생했다. 미국 CNN은 중국 환경 보호 전문가들이 상하이 콘서트홀(Shanghai Concert Hall)에 모여 중국의 환경 위기에 대해 공개 토론을 벌였다고 전 세계로 보도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던 이런 행사는 중국에서 환경 운동이 대규모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새로운 변화는 중국의 현명한 지도층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중국 국가 환경보호총국(The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EPA)은 1998년에야 비로소 중앙 행정 단위로 승격되었을 뿐인데 얼마 전 향후 5년 예산으로 미화 1,56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몇 달 전 중국 SEPA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체제이자 양대 오염 국가인 두 나라의 공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중국 SEPA와 미국 EPA의 공동 합의는 최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중국 SEPA는 15년 전만 해도 불법 단체였던 중국 비정부기구(NGO)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일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중국의 민간 환경 보호 단체의 수는 1개에서 2천 개로 폭증했다. 이들 단체는 루강(怒江) 대형 댐 건설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뒤로 갑자기 유명해졌으며, 이 행동은 중국 전역에 걸쳐 민중들의 참여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몫을 했다.

현재 모든 정부 세력과 민간 세력은 2008년 올림픽에 대비해 베이징을 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전의 올림픽 경기가 일본과 한국에 미쳤던 영향처럼 중국의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대대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국민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대폭적으로 고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새천년이 고대 중국인의 이상인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완벽하게 구현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두루 퍼져 있다. ☂

#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 전세계 주요 변화



### 북아일랜드의 역사적인 평화 발전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7월 28일, 북아일랜드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평화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이 장장 30년간에 걸친 북아일랜드에서의 영국과의 무장 투쟁에 종식을 선언하고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아일랜드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지도자들은 IRA의 정치 대표와 런던과 더블린 관리들 간의 협상으로 조정된 이 성명이 북아일랜드의 평화 과정을 소생시키고 30여 년에 이르는 종파간의 폭력 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분쟁으로 1969년 이후 3,600명이 넘는 구교도와 신교도가 희생됐다.

평화 성명이 발표된 후 이제 남북 아일랜드 간의

해묵은 원한은 과거 일이 되었다. 한때 정치적 입장 차이로 두 편으로 갈라져 적이 되었던 이 이웃들은 이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교도와 신교도 모두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각자 깃발과 종파에 관련된 상징물을 내렸다. 또한 2006년 4월 24일에는 북아일랜드 민주통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더블린에서 열린 정부 간 토론에 참여해 북아일랜드의 투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것들은 모두 서로간의 감정이 녹고 있음을 반영하는 명확한 신호이다. 현재 남북 아일랜드 국민 모두 화해를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평화를 열망하고 있다. 🌈



### ETA가 영구적인 휴전을 선포하다

파블로 몬데로/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스페인어)

1936년 스페인 내전은 결국 프랑코 독재 정권(1939-1975)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후 오래지 않아 스페인 북부에서 ETA(Euskadi ta Askatasuna, 자유 조국 바스크)라는 분리주의 단체가 조직돼 최근까

지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하지만 2004년 초부터 ETA는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더니 2006년 3월 23일에는 모든 무력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최근 선



#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언은 그 자체로서도 좋은 소식일 뿐 아니라 스페인 정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로 정치적 관점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원들이 다른 정당 및 그 지도자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5일, 칭하이 무상사는 스페인 마드리드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깨달음만이 무지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신의 사랑만

이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애만이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 신의 사랑을 이 행성에 가져오십시오. 나를 도와 신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천국을 이 행성에 가져오기 위해 침묵 속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신의 은총 속에 진정한 형제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

## 평화를 향해 나아가다

포모사 뉴스그룹

스리랑카

지난 20년 동안 스리랑카는 싱할리족과 타밀족, 두 종족간의 내전으로 양쪽에서 64,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피난민이 되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타밀 호랑이’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수도 콜롬보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충격과 불안감이 번졌고 곳곳에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검문 검색을 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스승님이 2000년 콜롬보에 도착해 공개 강연을 하셨을 때, 신실한 구도자들은 육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강연장을 찾아 스승님의 방문을 환영했다. 스승님

의 강연 이후 분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국제 사회도 이 섬의 안녕에 대해 보다 큰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2년에는 노르웨이의 협조로 양측이 휴전 협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상의 문이 열렸다. 2006년 2월에는 양측이 제네바에서 만나 첫 번째 평화 회담을 진행했다.

평화 회담의 진행을 바라지 않는 몇몇 극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양측은 평화를 향해 결연히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전체 상황이 좀더 안정되고 안전해짐에 따라 다음 평화 회담은 좀더 순조롭게 진척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편집자 주: 비록 평화의 서광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정도지만, 스리랑카가 보다 화합된 미래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 완전 입문을 깊이 열망하며

중국 반입문자 (원문 중국어)

### 사랑하는 스승님께

곤경에 처해 앞이 캄캄할 때면 전 조용히 당신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주십니다.

신심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려워질 때면 저는 조용히 당신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제게 용기를 주셔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도록 도와주십니다.

혼란스럽고 망설여질 때면 저는 당신의 인도를 청하며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제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스승님, 당신의 힘은 무소부재합니다. 당신께서 피곤에 지친 저를 다시 생기 있게 만드셨으며 당신께서 저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책을 읽고 오디오테이프를 듣고 비디오테이프를 볼 때마다 제 마음과 영혼은 깨끗이 정화되곤 합니다. 저는 세속의 먼지를 씻고 깨달아서 저의 본래 품성을 알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제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입문하신 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욱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영적이고도 고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사이가 좋아지고 인자해 지십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이제 겨우 반입문 했을 뿐인 제 영혼 깊은 곳에는 열망이 하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서 완전 입문을 해서 완전한 관음법문을 수행할 날이 오기를 매일같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덧없는 세상에서 자유워져 천국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유지하는 발전적인 주택 단지

존 헌터 사형/ 영국 런던 (원문 영어)

뉴스잡지 161호 ‘황금시대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후 변화, 오염, 물 부족 현상에 기인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신축 건물 부지가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현재 ‘브라운필드(brownfield: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황폐된 토지 및 건물)’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즉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 것이다.

흥미로운 새 주택 단

지는 공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개발자들이 ‘베딩턴 화석연료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Beddington Zero [Fossil] Energy Development, BedZED)’라고 칭한 이런 건축 방식은 최신 기술과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많은 요소를 결합해 미래 사회에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런던 남부의 브라운필드 부지에 지은 제1차 BedZED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0’으로 만들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기술과 폐목재를 연료로 한 열 병합 발전 설비를 통해 이 목표를 이루었다. 이 밖에 옥상에 설치된 널찍한 태양 전지판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로 40대의 전기 자동차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해 화석 연료 사용을 더욱더 감소시켰다.

단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BedZED 건설 팀은 부지의 반경 35마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만 사용해 건축자재의 ‘체현 에너지(Embodied Energy: 제조, 운송,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축에 사용되는 새로운 나무는 모두 지역의 세계 야생동물 기금협회(World Wildlife Fund) 삼림 관리위원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승인을 받은 숲에서 얻었다.

이 3층 높이의 단지는 총 82개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강력한 단열재를 쓰고 남향으로



런던 남부 서튼 자치 도시에서 처음으로 완공된 BedZED 단지.

창유리를 내어 겨울철에 충분한 난방 열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지붕에 고정된 풍력 환풍 장치와 열교환기 판을 이용한 정밀한 난방 및 통풍 시스템으로 따뜻한 공기를 모으고 재분배한다.

주거 공간을 살펴보면, 남향으로 하늘 정원을 두고 하늘 정원 아래 테라스의 그늘진 구역에 사무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집마다 실외 정원을 갖추는 한편 사무 공간은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BedZED 부속 건물 안에는 열 병합 발전 설비와 전기, 배전실, 단지 내 온갖 ‘오염물’을 처리하는 유리 지붕으로 된 처리실이 있다. 이 밖에 빗물을 저장해 재활용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을 줄이고 있다. 이 건물에는 대중 건강 센터, 탁



아소, 카페, 스포츠 센터,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다.

BedZED 개념은 한 건축가와 환경 컨설턴트 회사인 '생태 지역 발전 개발사(BioRegional Development Group)', 그리고 한 주택 협회가 5년

넘게 공동 개발한 성과이다. 약 240명이 거주하고 200명이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단지는 건물과 지역 교통 운송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해 탄소 중립적인 생활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브라운필드'를 활용한다면 영국과 다른 나라의 도시 확장 속도를 크



신축 마을 단면도

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 공공 휴식 시설, 쾌적한 작업 공간과 같이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제반 시설이 생기게 된다. 이런 선진적인 생활 개념은 이미 실제 주택으로 구현되었다. 이것이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보다 많은 건물을 설계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

참고:

[www.zedfactory.com](http://www.zedfactory.com)

[www.bedzed.org.uk](http://www.bedzed.org.uk)

사용된 이미지는 zedfactory 웹사이트에서 퍼옴.

##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과 비전의 결합

산호세&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난날 지구의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한 탓에 오늘날 전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공기·물·토지 오염이라는 두 가지 주요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그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좋은 소식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캐

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유엔 기후 회의 연설에서 전(前)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 설비 및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태양열 에너지 및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가길 희망했다. (주 1)

스승님은 이미 오래전에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신 바 있다. 스승님은 1992년 2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하신 '지상에서 정토를 만들자'라는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세계는 아직까지는 광물과 온갖 자원 등 모든 것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설령 석유가 없더라도 자동차를 움직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UFO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연료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세계에서는 우리와 달리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번거롭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꼭 태양 에너지인 건 아닙니다. 대기 중에는 다른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 생각엔 몇몇 과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찾아냈지만 아직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현재의 기술을 변화시켜 지구가 파괴되는 일을 줄이고 나아가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혁신적인 개념들이 연구되고 있다.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기술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기존의 에너지량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진작부터 에너지 절약 장치를 사용해 왔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주 2) 자동 온도 조절 타이머와 순간 온수기가 그 중 두 가지 예이다. 자동 온도 조절 타이머는 하루 또는 요일별로 온도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해 가열 및 냉각에 소모되는 자원을 보존한다. 순간 온수기는 필요할 때만 물을 가열하기 때문에 큰 물탱크를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 수소

수소는 대체 연료로 종종 언급되긴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순수한 수소 원소 형태( $H_2$ )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메탄( $CH_4$ ) 또는 물( $H_2O$ )과 같은 물질에서 ‘발생시켜야’ 한다. 수소는 진정한 대체 연

료라기보다는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몇몇 회사들은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수소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의 한 회사는 태양열 거울판에 의해 가열된 고온 반응기로 메탄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태양 수소 발생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H_2$ ), 이산화탄소( $CO_2$ ) 및 물이다. 이 회사는 바이오매스(biomass)의 혐기성 분해 방식을 이용해 메탄을 얻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주 3)

수소와 산소를 물과 전기로 변환시키는 연료 전지가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차는 연료 연소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로 동력을 얻게 된다. (주 4) 또한 ‘금속 수소화물’과 같이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은 결국 수소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바이오매스

나무처럼 살아 있는 식물 형태로 존재하는 가연성 탄소인 바이오매스는 지구상 가장 오래된 에너지 형태이다. 석유에 대한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속에 포함된 탄소 분자가 원료 상태에서 대기층에서 흡수한 것이어서 연소 후에도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그다지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연료 중에는 대개 식물의 씨앗에서 제조되는 바이오디젤(biodiesel)과 사탕수수의 당으로 만드는 에탄올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캐나다의 SOCAP(Society for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소비자 업무 전문가 협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캐나다의 임업, 농업 및 도시의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서 캐나다의 화석연료 소비량의 27%에 상당하는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

에 유럽과 다른 나라 정부들은 국민들에게 화석연료에서 탄소 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미국 에너지부도 바이오디젤의 주요 자원으로서 콩기름을 추천했다. 말레이시아는 매년 야자유를 이용해 수천 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생산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더욱더 적합하다.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은 대부분 에탄올 10%와 가솔린 90%를 혼합한 가소홀(gasohol)에 들어간다. 남미 대국인 브라질은 자국에서 재배되는 사탕수수로 제조한 에탄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2백만여 대의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해 오고 있다. 에탄올은 탄소 중립적일 뿐 아니라 벤젠이나 황도 방출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매년 약 160억 리터(35.2억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이 중 145억 리터가 국내에서 사용되며, 이에 대한 해외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다. (주 5)

가장 잠재성 있는 에탄올 제조법은 나뭇조각, 옥수수대, 잡초 등 지구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농업 폐기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섬유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만들기가 아주 쉽다.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 섬유소를 에탄올로 변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 (주 6)

## 핵융합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방사성 물질로 분열시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분열과는 달리 핵융합은 방사능 오염이 없는 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2개의 ‘중수소(이중수소 또는 삼중수소)’ 원자를 단일 헬륨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작동한다. 바닷물 1kg 으로부터 추출된 이중수소 원자(수소원자 7천 개당 이중수소 원자 1개)는 가솔린 300리터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은 별 중심부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지표 상에서는 이런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4개국은 현재 ‘인공 태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과학자들은 단시간 내에 섭씨 1억 도의 반응 온도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중국은 최근 고자기장과 강력한 레이저로 융합 연료를 압축하고 가열하는 그와 유사한 초전도 융합 장비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한 핵 기술자는 “열 핵융합 발전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지구의 해양에 있는 무한한 수소 동위원소가 우리의 연료가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 다른 대안적인 방안들

다음은 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의 사례이다.

태양열 집중 장치: 태양 에너지를 5천 배까지 끌어 모을 수 있다. 한 제조업체는 이런 집중 장치가 난방, 열 기반 온도 조절 장치, 발전기, 수소 제조기 및 다른 응용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 7)

열 해중합 기술: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유기물을 연료용 기름과 다른 유용한 부산물로 쉽게 분해할 수 있다. (뉴스잡지 161호 참고)

태양광 발전: 햇빛만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 및 광전판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전지 기술을 개선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지열(地熱): 화산 부근이나 온천 부근에서 지구 내부에서 솟아 나오는 증기를 얻어 터빈을 구동시키거나 직접적인 열 에너지를 얻는 방법. 희소하지만 매우 유용하다.

풍력 발전: 유럽과 미국에서 매우 보편적인 풍력 발전기는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 늘 공기의 이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풍력 발전기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조력(潮力) 에너지: 바다의 거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일부 특별한





지리적 위치, 특히 해양 부근 지역에 적합하다.

이 모든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개념은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지원 또는 상업적 투자 속에 개발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개념과 삶의 태도를 바꿔 채식으로 전환해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해 나간다면 이런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채식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을 복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그와 반대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식 비율이 높은 식사는 동일한 칼로리의 채식 식사보다 매년 1인당 1.5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량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주 8)

우리 동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행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민감해지고 환경을 지지하고 보호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스승님은 ‘우리는 천국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뉴스잡지 138호 ‘스승님 말씀’ 참고)


“그런 과학자들이 현재 이 행성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귀중한 기억을 가지고 와서 이 지구를 물질적인 방면에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자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행성에서 온 고도로 진보된 과학자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기억을 많이 잃지 않고 비교적 고통 없이 우리 세계에 환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토록 놀라운 기술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과학자나 컴퓨터 천재는 아니어도 부지런히 명상하며 자신과 자신의 기운,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이상 우리는 이 행성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聖人) 과학자들은 이미 우리 세계에 내려와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스승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기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는 높은 기술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과 영적 의식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과학기술은 세상을 진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 또한 그동안 도덕적 사고를 고양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정직해지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들은 성심껏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설령 자기 일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의 정직한 시민이 되어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인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적어도 문제는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선동해 과학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 사람들의 성공을 파괴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 2. 23.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 참고:

- 주 1: <http://www.sierraclub.ca/national/postings/clinton-speech-12-2005.html>
- 주 2: [http://healthandenergy.com/japanese\\_energy\\_efficiency.htm](http://healthandenergy.com/japanese_energy_efficiency.htm)
- 주 3: <http://www.shec-labs.com/process.php>
- 주 4: <http://www.ul.ie/elements/Issue5/Breen.htm>
- 주 5: <http://www.news.mongabay.com/2006/0126-ethanol.html>
- 주 6: <http://fermat.nap.edu/books/0309040760/html/16.html>
- 주 7: <http://www.physorg.com/news384.html>
- 주 8: <http://www.newscientist.com/channel/earth/mg18825304,800.html>

## 『 Ojo—Mirada a la Actualidad 』

코스타리카 산호세 2006년 3월 1일~3월 18일

(원문 스페인어)


## 명상은 두뇌 용량을 증가시킨다

[워싱턴 D.C.]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명상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명상은 자신을 알도록 도와준다. 또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명상은 두뇌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결론에는 정확한 설명이 뒤따른다. “두뇌 회백질의 증가는 명상 그 자체뿐 아니라 명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명상 체험의 깊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인 사라 라자르(Sara Lazar)의 말이다.

두뇌가 커진다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라자르와 동료들에 의하면, 회백질은 1인치당 8/1,000에서 16/1,000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명상을 하는 시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현재 연구 중인 자료에 의하면 명상 수행은 회백질의 용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성인의 두뇌 피질의 탄성도 향상시킨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라자르는 설명한다.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연구원들은 명상 수행을 했거나 추상적 사고를 하는 데 훈련된 20명과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15명의 두뇌를 스캐닝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전자 20명의 경우 주의 집중과 지각 과정에 연관된 두뇌 부위가 증가해 있었다. 라자르와 그녀의 동료들이 봤을 때 이 발견은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크기가 늘어난 부위가 노화에 따라 크기가 감소하는 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이 발견이 과학계에 해답을 주기보다는 많은 질문거리를 던져 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명상이 두뇌에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가? 명상이 노화 작용을 늦추는가? 명상이 세포간 연결을 향상시키는가? 등등. 라자르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우리는 아직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발견이 이전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입증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외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다. 몇 년 전 티베트 라마승의 두뇌 연구에 전념했던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Richard Davidson)은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받은 후 다른 미국 연구원들과 함께 수도원에 연구 센터를 세웠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을까? “동양 명상 기법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비슨의 연구가 명상의 신경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서 완전히 독창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전에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Herbert Benson)이 ‘명상은 두뇌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의 확정적인 관점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 텔레파시의 힘

청하이 무상사/ 2006. 1. 2. 영국 서리 (원문 영어)

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영매가 되거나 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개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어떤 언어로 말해도 다 잘 알아들읍니다. 왜냐하면 개는 영상을 이용해서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개는 마음속으로 영상이나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아주 완전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말을 이해합니다. 모든 언어의 모든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청정하게 유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그 안에는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이미지를 형성하며 좋고 나쁜 에너지를 여러분이 걷고 있는 주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친구의 말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계율을 지켜야 하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알려 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모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것을 형성합니다. 어떤 사

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는 대기 중에 남아 떠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거나 생각할 때 그 의도가 얼마만큼 강한가에 따라 오래갈 수도, 짧게 남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남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영원히 가깝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텐데,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저주의 에너지는 마법사가 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증오, 강한 사랑, 강한 복수심 등을 품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니까요. 저주이든 축복이든 온 힘을 실어 말하면 실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나 성직자에게 가서 축복해 달라거나 은총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미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텔레비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파수만 맞추면 영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텔레파시라는 거지요. 개나 동물들은 우리보다 텔레파시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잡한 생존 네트워크 속에 갇혀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물질적인 일도 많이 해야 하며 세속의 의무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점 물질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텔레파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에게 있었던 텔레파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치나 최대치로, 또는 절반 정도 가지고 있지요. 가끔 배우자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여러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초능력을 끌어 모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에게 있던 것이라서 가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리

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얘기들도 들릴 테니까요. 그러면 참기 힘들겠지요. 



유용한 정보



## 모든 중생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독제

청하이 무상사/ 2006. 1. 2. 영국 서리 (원문 영어)


나는 개들을 위해 손을 닦을 때 쓰는 식초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식초를 반반씩 섞어서 병에 넣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식당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에 뿌려 닦아내고 식당의 공용 식기에 뿌려 소독을 한 후 식기를 닦아냅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지요. 드라이 클리닝처럼 ‘칙!’ 하고 뿌리는 건데, 아주 유용합니다. 화학 성분도 없지요. 식초는 무해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작은 병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유용한 요령을 하나 배웠죠!

때로는 창문 같은 데에 뿌려도 됩니다. 아니면 무독성 방충 스프레이를 창문 주변에 뿌리면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기도 멀리 달아나고 작은 벌레들도 방충망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방충 스프레이가 없으면 식초를 뿌려도 도움이 됩니다. 벌레들은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데, 식초는 냄새를 없애 주니까요. 그러니 향수 대신 식초를 뿌리세요. 그러면 모기는 여러분이 상추인지 정열적인 금발 미인인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양배추나 채소라고 생각하겠죠! (대중 웃음)

개를 기르면 식초 물로 씻겨 주세요. 집에 개나 고양이 혹은 다른 애완동물이 있으면 식초와 물만 섞어

서 집안을 청소하십시오. 가끔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고 식초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미덥지 않다면 필요한 청소용 세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후엔 반드시 물로 깨끗이 닦아내어 화학 성분이 집안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나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죽진 않겠지만 몇 년 동안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개나 고양이는 화학물질을 못 견딥니다. 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겁니다.

그러니 식초 물만 사용하면 됩니다. 식초와 물을 반반 섞어 닦아 주세요. 개를 집안으로 들일 때 그 물로 개의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식초 물에 적신 수건으로 발과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닦아 주세요. 그 다음에는 물로 눈 주위를 재빨리 닦아내어 눈이 따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깥에 노출된 민감한 부위나 피부는 물로 다시 한 번 씻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끔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정말 손에 식초를 묻힐 수 없을 것 같으면 유아용 물 티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후엔 반드시 물로 닦아내세요. 그래야만 어떤 화학 성분도 남지 않게 됩니다. 





포모사 시후 장주 (원문 중국어)

1999년 스승님은 시후 장주들에게 미국 플로리다에 와서 중추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었다. 당시 플로리다 센터에는 말이 몇 마리 있었는데, 중추절 당일 여자 장주들은 스승님께서 호위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센터 안을 돌아 사람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실 예정이니 말들을 분장시키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 나는 센터 안에 말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서둘러 차를 타고 마구간으로 향했다. 좀 초라해 보이는 마구간에는 말이 몇 마리 보였다.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스런 마음이 들끓는 것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말 한 마리당 두세 명의 장주가 맡았는데, 일을 거의 마칠 무렵 어떤 사람이 와서 시간이 없는데 다 되어 가느냐고 재촉했다. 당시 나는 말의 엉덩이 쪽에 매듭을 묶으려고 했지만 말이 너무 커서 아무리 해도 손이 닿지 않아 애가 탈 지경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지? 조금만 닿으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심지어 중국어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 말이 바로 뒷다리를 꿰어서 엉덩이를 낮춰 주었다. 나는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서둘러 나머지 일을 마쳤다. 마음속으로 감동이 밀려들며 내면 한쪽의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 내리고 기쁨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스승님은 말씀 중에 동물의

영성과 인류와 동물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실제 상황에 처해 본 뒤에야 비로소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이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매년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이 되면 시후 센터에는 특이한 새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는 몸집이 비교적 크고 발로 먹이를 낚아채는 새도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새가 갑자기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나타났다. 새는 사람을 보면 몸을 숨기려고 푸드덕거렸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떨어지곤 했다. 아무래도 어딘가 아프거나 다친 게 틀림없었다. 그 새는 뾰족하고 긴 부리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형들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사과와 왁스애플을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스승님의 예전 말씀을 떠올리곤 내면으로 이미지를 그려 새에게 “우리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아픈 데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하고 텔레파시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다가가 새를 가슴에 안았는데 새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기대 있었다. 우리는 새를 천을 깐 종이 상자에 담아 급히 조류 협회에 데려갔다. 그동안 새는 얌전히 있었다. 조류 협회에 도착하자 협회 회장은 새의 다리를 살펴보니 새가 한쪽 다리를 다쳐 사냥을 못 해서 굶은 지 며칠이나 되어 매우 허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

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바로 나가서 영양제를 사 가지고 와 새에게 보충시켜 준 후 새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얘기했다. 지금 와서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동물에게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법’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야생조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스승의 힘, 관음법문, 그리고 신의 힘이 만물 속에 두루 퍼져 그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사랑과 즐거움의 원천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백만 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



수행의 길목에서

## 관음 가족은 날마다 행복해

기셀라 C. 레알 사저/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원문 스페인어)

2003년 5월, 칭하이 무상사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 뒤 우리는 관음법문 입문이라는 드물고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이 아름다운 영적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화목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 남동생 호앙의 경우, 전자제품 수리와 같이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잠재능력을 일깨우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영성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가는 이 광활한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기쁨은 때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나는 모든 이들이 관음법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 법문이 우리를 세속적인 세계 너머로 데려다주리란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승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해 주시는 해탈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물질에 의해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승님과 서로 연결돼 있다. 또한

스승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사형사저들과 함께 스승님 곁에 함께 있고 싶다.

만일 이 세상에 더 이상 이기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세속적인 욕망에 영향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즐거울까! 어찌면 우리는 다 같이 즐겁게 살 날이 아직 요원하다고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의 동수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영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나는 전쟁이 가장 생각지도 못한 때에 끝날 것이란 걸 안다. 인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나면 모두가 신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말이다.

나의 삶에 온갖 변화를 가져다주신 스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우리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해 준 동수들에게도 영원히 감사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동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 인디펜던트 TV를 통해 매월 전국적으로 방영되다

미국 LA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스승님의 은총으로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 이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 인디펜던트 TV(이전의 PAX)를 통해 미국 50개 주로 방송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3월 19일 4부작 특별 프로그램인 ‘아프리카-신의 뒤뜰’ 제1부를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방영 시간인 일요일 오후 4시 30분은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 중 하나에 속한다. 신의 완벽한 안배 속에 인디펜던트 TV의 프로그램 조정 국장은 이전에 방영되었던 ‘진정한 영웅(The Real Heroes)’ 과

평화를 구하는 자(The Peace Seeker)’ 등의 프로그램이 호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이 시간대에 스승님의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다.

이 희소식을 전해 들은 미국의 사형사저들은 즉시 포모사 동수들과 함께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미국 내 주요 유력 신문사와 국제신문사에 광고를 싣는 한편 우리 협회의 많은 웹사이트에 방송 안내문을 올렸다. 전국의 동수들은 TV 프로그램 방영 소식이 담긴 카드와 함께 ‘대안적인 삶’ 전단지도 나눠 주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미국 전역에서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방송 시청에 관한 문의 전화가 걸려 왔다. 캐나다 일부 지역과 미국 국경선 근처의 멕시코 지역에서는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3월 19일, 첫 방송이 나간 후 바로 이 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 사본을 구하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스승님의 가르침에 끌렸다고 얘기했으며, 그 중 아이다호에서 전화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 깊었다. 그녀는 열성적이고 신실한 태도로 프로그램 중 스승님의 강연 내용이 기록된 것을 구하지 못하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견본책자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책에 ‘아프리카-신의 뒤뜰’의 강연 내용도 실려 있나요? 이번 방송분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싶거든요.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걸 갖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그녀의 어투는 마치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열렬했다. 또 한 남자는 가까운 시일에 1부가 재방송되는지 물었다. 그는 1부 방송을 놓쳤지만 정말로 보고 싶다고 하면서 4부작 전집을 DVD나 비디오테이프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그는 유감스런 목소리로 자신이 곧 다른 주로 이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방송분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술과 영성’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플로리다로 이사하더라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났 듯이 기뻐했다.

캘리포니아의 한 인도 여성은 전화를 통해 자신은 전세계 성자들의 강연을 들어 봤지만 스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승님의 음성이 자신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고 한다. 우리 동수가 그녀의 질문에 답하던 중 “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은 정말 진솔합니다.”라고 하자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 신은 진솔하시지요!” 하고 응답했다.

인디애나 주의 한 여성은 통화 중에 자신을 지역

4개 TV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면서 자기의 프로그램에 이 방송을 내보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그녀는 신문에서 방송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다 본 뒤 스승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인디펜던트 TV 채널은 ‘예술과 영성’에 관한 30초짜리 광고를 무료로 매일 내보내서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예고했다. 제1부가 방영되기 전날 저녁, 한 부인은 스승님의 말씀 중 일부를 보게 되었다. “이건 정말 간단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신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방향만 바뀌서 보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녀는 그때 스승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이 발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청하이 무상사의 그 말씀을 들은 후 다음 날 만사를 제쳐 두고 이 프로그램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 말했다. 그 외 다른 시청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 완전한 진리”라고 표현했다.

시청자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이재민들을 돕는 우리 협회의 시기 적절한 구호 활동을 담은 특별 보도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 보도에는 홍수 이재민들에 대한 협회의 구호 활동을 취재한 ABC 뉴스의 보도 장면도 들어 있었다.

제1부는 스승님이 초기에 쓰셨던 시로서 처음으로 공개된 아름다운 노래 ‘저녁의 꿈(Evening Dream)’으로 멋지게 마무리되었다. 이 노래는 스승님이 신성한 영감이 솟아오르던 순간 자연스레 부르시게 된 노래들 중 하나이다. 스승님은 노래를 하시거나 시를 낭송하실 때 그 구절 속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몰입하신다. 그래서 스승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진다.



많은 열렬한 시청자들이 스승님이 노래하신 CD를 사고 싶어했는데, 그들이 백인이고 스승님의 노래는 어울락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미시간 주의 한 미국 남성은 노래에 깊이 매료된 나머지 “실례하지만 ‘저녁의 꿈’ 이 담긴 CD가 있나요?” 하고 물어 왔다. 그는 전에는 스승님을 몰랐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자막을 읽고선 당장 앨범을 사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강연과 음악, 시, 그림, 보석 디자인 및 다른 재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시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마지막 장면에는 ‘대안적인 삶’ 전단지의 내용이 나와 미국 전역의 수백만 시청자들이 보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방송될 모든 프로그램에도 반영돼 사람들이 보다 자비로운 식생활을 하도록 일깨울 것이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전단지에 대해 물으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TV 매체를 통해 스승님의 메시지가 광범위한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오늘날 급속히 움직이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전화를 걸어 TV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다. 그래서 전화를 통한 열성적인 시청자들의 호응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 뭉클해졌다.

기술 전문가인 사형사저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방송을 놓

쳤거나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편한 시간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www.peacethrumusic.com](http://www.peacethrumusic.com) 또는 [www.godsdirectcontact.org](http://www.godsdirectcontact.org))

얼마 전에 ‘진정한 영웅’ 과 ‘평화를 구하는 자’가 방송된 이후 스승님의 프로그램은 고정 팬이 계속 늘고 있다. ‘예술과 영성’ 이 전국적인 방송사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원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방송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와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따르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프로그램의 다음 방송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강연에서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의 의식이 보다 깨어나고 높이가 고양된다면 이 세계는 더욱 장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밀레니엄이란 것은 없습니다.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결정합니다.”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건대, 세계는 정말 스승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보다 높은 의식으로 고양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유쾌한 기회였다! 그리고 영적 여정의 매 단계마다 축복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스승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은 인디펜던트 TV를 통해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전국적으로 방송된다. 또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KSCI TV 채널 18을 통해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지역 시각 기준)에 방송된다.



## 실상을 폭로하는 영화:

# 미트릭스



앨리스테어 다크 사형/ 호주 브리즈번 센터 (원문 영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 다루지 않거나 대중의 참여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인(聖人)들의 선구적 역할과 지혜 덕분에 이러한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미트릭스(Meatrix)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근원에 대해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거짓된 세계이다.” 검은 옷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무피어스(Moopheous)는 구유에 코를 처박고 사료를 먹고 있던 돼지 레오(Leo)에게 이렇게 말한다. 1997년도 최대 히트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를 본 사람이라면 즉시 이 패러디를 눈치챌 것이다. ‘매트릭스’는 평생을 허구의 세계인 ‘매트릭스(Matrix)’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미래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다. 인류에게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매트릭스 밖에서 사고력은 있지만 영혼이 없는 ‘기계’들을 위한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트릭스’ 또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동물들이 모두 헛살 속에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가상 현실이다.

프리 레인지 그래픽스(freerangegraphics.com)에서 제작한 짤막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인 ‘미트릭스(The Meatrix)’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

제의 이면에 깔린 진실을 알리고자 ‘개미 군단’들이 솔선해서 만든 훌륭한 작품이다. 나는 2004년에 한 채식주의자 친구가 이메일로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해 줘서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장식 축산 농장의 실상과 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2002년에 처음 돌기 시작한 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웨비 상(Webby Award)’과 ‘인터랙티브 상(Interactive Award)’, ‘EMA’와 같은 인터넷 상과 다른 많은 상도 수상했다. 현재는 젓소 축산 공장을 특별히 다룬 후속편을 내놓았다. 영화 ‘매트릭스’ 3편이 ‘매트릭스: 혁명(The Matrix: Revolutions)’이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미트릭스’의 후속편 제목은 ‘미트릭스 II: 반란(The Meatrix II: Revolting)’이다.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미트릭스’는 그 요점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한다. 이 두 애니메이션이 결국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비자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

리 모두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어떤 사형은 나에게

우리의 소비 선택이 투



표권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미트릭스’가 채식을 주창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가족 농장을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나온다. 그러므로 ‘미트릭스’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상의 표면 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만들긴 하지만 진실 그 자체를 폭로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단순히 공장식 축산

농장의 도살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살생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수준이 보다 높아져서 온 인류가 사랑과 자비의 의식을 갖게 되어 동물들을 학대하고 살생하는 모든 행위가 사라지길 희망한다. ☂

‘미트릭스’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http://www.thematrix.com>

<http://www.thematrix2.com>.

## 채식주의자가



## ♥♥♥♥♥ 된 소방관들

빈센트 응우옌/ 미국 버지니아 센터 (원문 영어)

텍사스는 청바지에 카우보이 모자, 금속 버클이 달린 큼직한 가죽 벨트를 한 카우보이들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육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텍사스의

주도(州都)인 오스틴의 소방대원 다섯 명이 채식주의자가 되자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미



국 전역의 매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웹사이트(<http://www.engine2.org>)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BMW에 탄 여성들이 소방차 곁에 차를 대며 그들에게 채식하는 소방관들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뇨, 그건 2호차 대원들인데요.’ 하고 답했다.”

한 식당에선 메뉴판에 그들의 이름을 딴 앙트레를 추가했다. 바로 ‘2호차 채식 샌드위치’가 그것이다. 이 밖에 PETA(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모임)에

서는 그들에게 ‘올해의 동물 애호 소방서 상’을 수여했다.

이 모든 일은 정기 콜레스테롤 수치 검진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 이상인 사람을 위험하다고 본다. 37세의 소방관 레이(Rae)는 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344mg/dL인 것을 알게 됐다. 그의 가족 중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레이의 부친 역시 아직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50대 중반에 심장마비로 삼중 혈관 우회 수술을 받았다.

동료 소방관인 43세의 이셀스타인(Esselstyn)은 레이의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레이에게 채식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했다. 이셀스타인은 1997년에 소방관이 되기 전 철인 3종 경기 전문 선수였다. 그는 1986년부터 채식을 시작해 2002년에는 우유와 유제품도 먹지 않는 비건이 되었다. 이셀스타인의 부친인 칼드웰 이셀스타인 2세(Caldwell B. Esselstyn Jr.)는 클리블랜드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였다. 이 병원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미국 4대 우수 병원 중 하나로 유명하다. (주 1) 이셀스타인 박사는 심장병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12년간 연구 실험을 해 왔다.

그의 연구에서는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 심장협회의 권유대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mg/dL 이하로 유지한다 해도 수백만 명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 함량 10% 미만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관상동맥 질

환의 발생을 막고 현 병세의 악화를 멈추며 그와 유사한 많은 환자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주 2)

이셀스타인은 동료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만들어 냈다. 그 중에는 시금치와 포르트벨로 버섯을 넣은 채식 엔칠라다 요리인 ‘폴 매카트니’도 있었다. 2호차 대장인 스콧 월터스(Scott Walters)도 이셀스타인이 만든 요리를 먹어 본 뒤 채식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새로 채식주의자가 된 월터스 대장은 두부 초콜릿 푸딩을 만들어 또 다른 소방관에게 맛을 보였고 이에 그때까지만 해도 ‘채식 혐오가’라고 자칭했던 그 소방관도 결국 채식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제임스 레이(James Rae), 립 이셀스타인(Rip Esselstyn), 맷 무어(Matt Moore), 데릭 즈워니먼(Derick Zwerneman), 스콧 월터스 등 2호차 다섯 대원 모두가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모습은 많은 오스틴 시민들과 미국 전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셀스타인은 자신의 채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비의 관점과 환경 보호의 문제에서 보자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돼지나 소, 닭들이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스운 일이지요.” 또한 그는 공장식 축산 농장이 매우 비인간적이며 환경을 파괴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레이 대원은 채식으로 바꾼 후 기분도 더 좋아졌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196mg/dL로 떨어졌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engine2.org/sit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Itemid=13](http://www.engine2.org/sit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Itemid=13)

주 1: <http://www.clevelandclinic.org/>

주 2: [http://www.vegsource.com/esselstyn/moderation\\_kills.htm](http://www.vegsource.com/esselstyn/moderation_kills.htm)





# 에너지 위기의 해결법 대체 연료와 채식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미국 지구물리학 협회(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회보인 『지구 상호작용(Earth Interactions)』은 2006년 4월 12일자 기사에서 완전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데 더 기여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시카고 대학교의 기든 이셜(Gidon Eshel) 교수와 파멜라



시카고 대학교의 파멜라 마틴 박사와 기든 이셜 박사가 채식 식사를 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마틴(Pamela Martin) 교수는 완전 채식을 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톤 줄일 수 있는 반면 기존의 자동차(예: 도요타 Camry)에서 하이브리드카(예: 도요타 Prius)로 바꿀 경우에는 1톤을 줄일 수 있다고 단정지었다. (주 1)

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생선을 먹기 까지 소모되는 에너지 가격이 붉은 육고기를 먹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으로 생선을 수송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생선과 육고기를 중

종 육식동물의 ‘저렴한 단백질’이라고 보곤 했는데, 인간의 식품 생산으로 보자면 그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 새우 단백질의 에너지 효율(에너지 산출량/ 에너지 투입량)을 예로 들자면 0.5%밖에 안 되지만 귀리의 에너지 효율은 510%에 달한다. 다른 동물성 식품도 3% 수준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단백질에 한

한 것일 뿐 다른 영양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다른 영양 성분까지 따진다면 과일과 채소는 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은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주 2)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육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물과 같은 천연자원 소비에 따른 장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 가격은 계산에 넣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가능한 한 완전 채식을 하면서 ‘일반’적인 음식을 멀리할수록 이 행성에 더욱더 좋습니다.” 🌞



참고:

주 1: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6-04/uoc-svd041306.php](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6-04/uoc-svd041306.php)

주 2: <http://constructal.blogspot.com/2006/03/greens-eat-greens.html>

##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추가 명단)

### 배우 및 영화 제작자

앤 헤더웨이(Anne Hathaway: 미국 여배우), 크리스틴 코프만(Christine Kaufmann: 호주 여배우, 아름다움과 건강에 관한 책 집필),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 미국 배우 겸 감독), 질리언 앤더슨(Gillian Anderson: 미국 여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Jamie Lee Curtis: 미국 여배우), 린다 스톤(Lynda Stoner: 호주 여배우, 동물 보호 운동가), 모니카 바인체틀(Monica Weinzettl: 오스트리아 여배우, 피트니스 강사, 세계급 MTB 선수),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미국 영화 제작자 겸 감독), 윌렘 대포(Willem Dafoe: 미국 배우), 윌리엄 샷너(William Shatner: 미국 배우), 브룩 실즈(Brooke Shields: 미국 여배우), 에도아르도 데 필리포(Edoardo De Filippo: 이탈리아 배우, 작가), 조르지오 알베르타찌(Giorgio Albertazzi: 이탈리아 배우), 피노 카루소(Pino Caruso: 이탈리아 연극배우).

### 건강 및 피트니스 전문가

치우난 라이 박사(Dr. Chiu-Nan Lai: 중국인, '유리광세계' 창립자).

### 모델

애널리제 브라켄섹(Annalise Braakensiek: 호주 수퍼모델), 실비 보디(Sylvi Body: 헝가리 사진 모델).

### 철학자 및 영적 인사

에드몽 보르도 체컬리(Edmond Bordeaux Szekely: 헝가리 철학자, 언어학자, 정신주의 작가), 루치우스 아나에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로마 철학자), 유리 겔라(Uri Geller: 이스라엘 초능력자), 지오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 이탈리아 철학자), 루시오 안니오 세네카(Lucio Anneo Seneca: 로마 철학자, 정치인, 극작가), 마르티네티 피에로(Martinetti Piero: 이탈리아 철학자).

### 정치가 및 사회운동가

마들린 페트로빅(Madeleine Petrovic: 오스트리아 녹색당 당수), 알프레드 디킨(Alfred Deakin: 호주 제2총리), 로사 파크스(Rosa Parks: 미국 여자 재봉사, 인권운동가), 피스 필그림(Peace Pilgrim: 1908-1981,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채 스스로를 '평화 순례자'로 칭한 은발의 여성. 1953년부터 1981년까지 25,000마일을 혼자 평화를 위한 도보 여행을 함), 마르코 툴리오 키케로(Marco Tullio Cicerone: 로마 정치가, 연설가, 작가), 루치오 퀴نزियो 친나토(Lucio Quinzio Cincinnato: 로마 장군, 정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로마 황제), 마치니 주세페(Mazzini Giuseppe: 이탈리아 애국자), 플리니오 카이오 세콘도(Plinio Caio Secondo: 로마 관리, 학자).

###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알버트 슈첸그요르기(Albert Szentgyorgyi: 헝가리인, 비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함),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독일 자연과학자, 탐험가), 조르지오 셀리(Giorgio Celli: 이탈리아 곤충학자, 교수, 시인), 마르게리타 하크(Margherita Hack: 이탈리아 천문학자, 작가, 정치가), 마리오 토치(Mario Tozzi: 이탈리아 지질학자, 기상학자).

### 가수, 무용가, 음악인

아나스타샤 볼로초초바(Anastasia Volochnikova: 러시아 발레리나), 안드라스 라아르(Andras Laar: 헝가리 가수), 보니 레이트(Bonnie Raitt: 미국 싱어 송라이터), 칼 프리트베르크(Carl Friedberg: 독일 피아니스트), 도노반 필립스 레이치(Donovan Philips Leitch: 스코틀랜드 싱어 송라이터), 도라 라키&레벤테 슈조니(Dora Laki & Levente Szonyi: 헝가리인, 살사 댄스 세계 챔피언을 여러 차례 획득함), 에리카 바두(Erykah Badu: 미국 가수, 여배우, 작곡가, 그래미 상 후보), 인디아 아리(India Arie: 미국 가수, 그래미 상 두 차례 수상), 조셉 브라운(Josef Brown: 호주 발레리노, 동물 보호 단체인 '동물 해방'





[Animal Liberation]의 회원), **카탈린 피티**(Katalin Pitti: 헝가리 오페라 가수), **카티카 일레니**(Katica Illenyi: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리 카토나**(Klari Katona: 헝가리 팝 가수), **린제이 맥두갈**(Lindsay McDougall: 호주 기타리스트),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프랑스 작곡가), **퍼시 그레이너**(Percy Grainger: 호주 작곡가, 피아니스트), **피터 (블랙키) 블랙**(Peter [Blackie] Black: 호주 가수, 기타리스트), **라인하르트 메이**(Reinhard Mey: 독일 싱어 송라이터), **산도르 레베즈**(Sandor Revesz: 헝가리 가수), **수잔 베가**(Suzanne Vega: 미국 싱어 송라이터), **토마스 D**(Thomas D: 독일 음악인), **지아니 모란디**(Gianni Morandi: 이탈리아 팝 가수), **조바노티**(Jovanotti: 이탈리아 팝 가수), **니콜로 파가니니**(Niccolo Paganini: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세르주 첼리비다체**(Sergiu Celibidache: 루마니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사).

### 스포츠 인사

**크리스토퍼 지베르**(Christoph Sieber: 오스트리아 올림픽 서핑 챔피언), **그렉 차펠**(Greg Chappell: 호주 운동 선수, 국제 크리켓 선수), **이스트반 시포스**(Istvan Sipos: 헝가리 울트라 마라톤 및 장거리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 **머레이 로즈**(Murray Rose: 호주 수영 선수, 올림픽 4관왕), **피터 브록**(Peter Brock: 호주 카 레이서, 동물 보호 운동가), **리타 코반**(Rita Koban: 헝가리인, 올림픽 카약 2관왕, 세계 챔피언 6회), **로버트 헤이즐리**(Robert Hazeley: 영국 보디빌더).

### TV 유명인사

**타마스 비트레이**(Tamas Vitray: 헝가리 TV 시사 평론가), **아드리아노 첼렌타노**(Adriano Celentano: 이탈리아 가수, TV 사회자), **마르코 콜롬브로**(Marco Columbro: 이탈리아 TV 사회자), **레드 로니**(Red Ronnie: 이탈리아 TV 사회자).

### 작가, 예술가, 시인

**코랄 헬**(Coral Hull: 호주 작가, 동물 보호 운동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덴마크 작가, 시인), **존 킨셀라**(John Kinsella: 호주 시인), **조나단 사프란 포어**(Jonathan Safran Foer: 미국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오스트리아 작가, 시인), **로버트 돌락살리**(Robert Dolak-Saly: 헝가리 작가, 코미디언), **비디아다르 수라즈프라사드 나이폴**(Vidiadhar Surajprasad Naipaul: 트리니다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 **웨이 왕**(Wei Wang: 중국 화가, 시인), **데치모 주니오 지오베날레**(Decimo Giunio Giovenale: 로마의 풍자 시인), **알베르토 모나비아**(Alberto Moravia: 이탈리아 작가), **오라지오 플라코 퀸토**(Orazio Flacco Quinto: 로마 시인), **풀비오 오비디오 나소네**(Publio Ovidio Nasone: 로마 시인, 작가), **로베르토 제르바소**(Roberto Gervaso: 이탈리아 작가), **티토 루크레치오 카로**(Tito Lucrezio Caro: 로마 시인, 철학자), **티치아노 베첼리오**(Tiziano Vecellio: 이탈리아 화가), **비르질로 마로네 푸블리오**(Virgilio Marone Publio: 로마 시인).

### 신문기자

**우고 체노네티**(Ugo Ceronetti: 이탈리아 신문기자).

### 의사

**움베르토 베로네시**(Umberto Veronesi: 이탈리아 암 전문의, 전 보건부 장관).

### 학자, 교육자

**알도 카피티니**(Aldo Capitini: 이탈리아 철학자, 작가),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이탈리아 교육자, 내과 의사).



보다 상세한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명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나라별, 직업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AL.Godsdirectcontact.org.tw/vg-vip>



이란

##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31일 이른 아침, 이란 서부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해 작은 마을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이들 마을은 너무 가난해서 철이나 스틸 건축재로 보강한 집이 없어서 지진 원진지 주변 300여 마을의 가구들이 30%에서 100%의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날 밤 본격적인 지진이 발생하기 전 작은 규모의 예비 지진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 주의 시장이 라디오와 TV로 사람들에게 지진 예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장은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들을 마을에 보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한편 그날 밤에는 바깥에서 잠을 자라고 권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잠을 자서 피해 규모는 컸지만 사망자는 거의 없었다.

4월 2일 아침, 동수들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하기 위해 재난 지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피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저가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과 연락해 보도록 제안했다. 이 사저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는데, 그도 이미 우리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집을 내주었다. 그 도시에서 그의 집이 있는 지역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친절한 집주인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정말 최고의 협력자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유한 농부인 그는 부근 지역에 대해 상당히 익숙했고 지진이 일어나자 바로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조사해 마을마다 가장 필요한 도움을 알아 놓은 상태였다.

그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마을들로 안내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수입 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아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려 주곤 했다. 마음이 순수한 그는 구호 활동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일했으며 줄곧 좋은 인상을 유지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조사를 한 후 수도인 테헤란에 있는 동수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서 재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물품을 사서 운송하기까지 하루 반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다음날인 4월 3일에 가까운 여러 도시에서 생수 6천 병을 사서 수도 시설이 파괴된 마을에 물병들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다.

모든 물자가 다 구해지자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물품들을 큰 자루에 넣어 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 신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집주인의 가족들과 그의 이웃들, 친구들이 모두 와서 우리 구호 팀은 순식간에 40여 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공장 두 군데에서 무료로 트럭을 빌려주어 우리는 트럭 한 대씩 차례로 물품을 실어 재해 지역으로 운송했다.

재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우리 구호 팀은 두 조는 서로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 물품을 나눠 줄 구호 팀이 다음 트럭과 만날 장소를 정해 시간을 아꼈다. 천 개의 물품 꾸러미를 나눠 준 뒤, 우리는 텐트에 덮여있어 추위와 비를 막아 줄 대형 비닐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인 4월 7일 정오쯤, 따뜻한 담요를 포함해 모든 구호 물품을 다 나눠 주었다.

모두들 우리의 도움에 고마워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면 우리는 가끔 이 모든 도움은 외국에 살면서 자선 활동을 하는 어떤 숙녀가 보내온 것이라고 말해 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두 생면부지의 외국인 숙녀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베풀어 준 것에 놀라워하면서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 말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 무슬림인 집주인 부부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했다.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에게는 채식주의란







사람이 매우 관심 있어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그에게 채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집주인은 한쪽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어린 아들의 바지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를 집어 들더니 집 뒤뜰에다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개미를 죽일 수가 없게 됐어요.” 하고 말하며 웃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우리에게 채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진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넘겼는데 그가 점심 식사 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 그가 더 이상 계란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러분이 말한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기회만 있으면, 특히 재해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명상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방편법을 배웠고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명상을 연습하고 싶어했다. 그의 부인도 그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에 기뻐하면서 “그게 남편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개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못 하게 했다. 마지막 다섯째 되던 날, 집주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입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동물들의 머리를 신나게 자른다고 했던 사람이 며칠 새에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고 입문까지 원하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가까워서 5일 넘게 일하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매우 순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승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의 영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 명의 동수들이 그의 집에서 6일 동안 잘 지내고 떠나려 할 때 그는 매우 아쉬워하면서 “여러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모든 도움에 대해 감사하자 그는 자신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그 어떤 감사의 말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끔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데 나중에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지난달에 꿈을 꿔는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래의 선지자의 친구가 되는 꿈을 꾸었거든요. (무슬림들은 장차 최후의 선지자가 나타나 인류를 구한다고 믿는다.) 그러고선 영적인 세계들을 계속해서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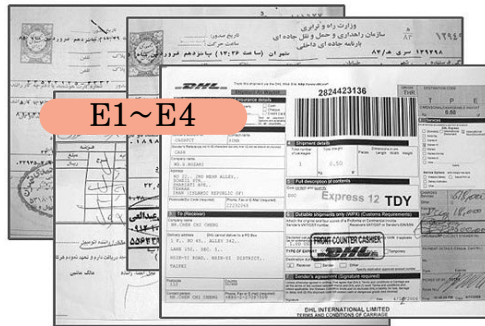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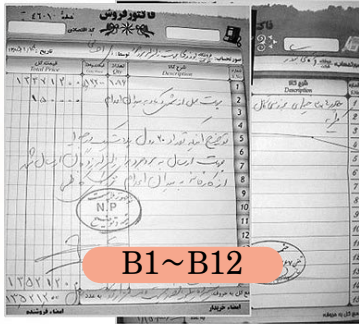
올라갔는데 아주 성스럽게 변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다가 우리가 자신을 너무 거만하다고 여길까 봐 말을 멈추었다. 이 꿈은 그가 명상을 하고 채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일종의 암시였던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구호 활동이 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느끼며 그곳을 떠났다. 또한 이 활동은 이란 동수들에게는 놀랍고도 멋진 경험이었다. 그들 대부분이 새로 입문한 사람들이어서 이번 구호 활동 우리 각자에게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재민들을 도우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했다. 모든 동수들과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로 수많은 이로움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일했던 비입문자 모두 우리의 정신과 스승님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큰 자극을 받았다. 물론 스승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구호 물품을 받은 많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 또한 고양될 것이다. 🌸

## 이란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이란 투만)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생수, 식품 (빵, 국수, 과자, 대추야자, 통조림)	5,604,600	A1~ A12
텐트, 비닐 천(텐트용 덮개)	1,530,000	B1~ B12
담요	1,529,000	C
속옷, 개인 위생용품, 비누	1,390,900	D1~ D3
운송비	256,000	E1~ E4
잡비 (위로금, 비닐봉투, 선물, 가스 등)	255,000	F
합 계	10,565,500투만 (미화 11,560달러)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장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보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 아프리카 ■

- ★ **알제리:**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 **베냉:**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o@yahoo.com
-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 **모리세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i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 **니제르:**  
필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emazima@yahoo.com

### ■ 아메리카 ■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casa25@yahoo.com.ar
-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8-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l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lido@yahoo.com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valenzuela\_sonia@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 **니카라과:**  
마나agua/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one2@yahoo.com
-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ontrol@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 **미국:**  
\* 에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에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jedj@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juno.com  
샌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yaho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플로리다: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6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l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포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포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매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l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클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513-377-2375/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lua Dong/ 1-718-58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해밀턴/ Mr. Gilbert Rivera/ 1-513-226-3686/ wisdmeye@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ldong Duan/ 1-972-517-5807/ water98@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l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j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i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nsalda Hernanadez Morales/ 1-787-262-1874/ dins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8/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ماس.com.id

달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달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88/ harry\_l@sby.dnet.net.id

요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t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유태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334-9204~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부산/ 황선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인동/ 김삼철/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창곡/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필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필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iks@mp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c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iad@stou.ac.th

차앙마이/ Ms. Sirwan Supatrchamlian/ 66-50-332136/ sirwanily@gmail.com

콘렌/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r. Jussi Pohjolainen/ 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퐁블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llancelot@celestia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rigoril.Guinzboung@gmx.de

뤼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87050/ Ching-Hai@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9@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k/ 48-91-4874953/ ginalg@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iria/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l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연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la.com

####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워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c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i@matters19.freeser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트록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 오세아니아 ■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l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hopp/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l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einolorquanyinsydney@yahoo.com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mond Dlx 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34/ hamnzconl@yahoo.co.nz

넬슨/ Ms. Shari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행복한 동물 낙원

# Happy Doggie

## 애완견 천의 및 방석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에 따라 S.M. 천의 회사는 체구별로 디자인이 다양한 '해피 도기(Happy Doggie)-애완견 천의 및 방석' 시리즈를 최초로 제작했다. 예쁜 모양과 보온이 잘 되는 실용성을 갖춘 '해피 도기' 시리즈로 인간의 가장 충직한 친구들도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천의를 입은 이 영리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황금시대를 맞이한 가장 당당하고 인상적인 개들임에 틀림없다!



### 중소형 애완견용:

### 스위트 도기



발레리니타



숙녀

### 아이 스파이



부잣집 아가씨



가라데 고수



시인



### 중대형 애완견용:

### 양치기

### 보헤미안







행복한 동물 낙원

# Happy

# Doggie

애완견 천의 및 방석



그림자 사냥꾼



해피 도기



기수



운동선수

캐주얼 · 스포츠 웨어  
-프리 사이즈



"비가 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방석

해피 도기 방석 시리즈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편안하다. 커버는 벗겨서 세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방수도 된다. 커버의 천은 해피 도기 천의와 어울리는 것으로 고를 수 있다.



왕실 장식



귀족 가문



개 공화국